(日刊) (第三版) 昭和十一年六月九日 (火曜日)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第五千四百七號 【一】

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鎭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鐵道網建設의 進展

民衆에의影響如何

一

最近 朝鮮에 잇서서의 鐵道網建設은 相當한 速度로 進展한다。特히 滿洲事變을 契機로 産業的、軍事的 必要에 迫한 鐵道建設은 實로 急速度的으로 進展한다。滿浦鐵線、惠山鐵線、平元線、東海線等의 促進、中央線(京城—永川—釜山)京春線의 建設案 通過 및 着手는 這間의 消息을 알수잇다。昨年 十二月 十六日現在 朝鮮內 鐵道延長은 局營線 三千二百二十九粁、委營線 三百卅八粁 私鐵 一千二百五十粁 計四千八百七粁이오、未營業線 局營 九百卅三粁、私鐵 三百九十四粁 計 一千三百二十七粁를 合하면 實로 六千百三十五粁의 長距離이다。이리하야 이것을 昭和九年末現在 面積 一千平方粁當 日本本州 七十粁、北海道 四十四粁、臺灣 三十八粁에 比하면 가장 뒤떨어진 二十一粁이나 今後 이 趨勢로 나가면 北海道 臺灣을 凌駕할 날은 目睫間에 잇고 日本本州에 따라갈 날도 全然 想像치 못할바아니다。

二

鐵道網이 進展하면 그 地方에 政治的、經濟的、社會的으로 重大한 影響을 이르키는것은 原則이다。地方分權的 政治가 中央集權主義로、自作自給의 經濟制度가 交換經濟制度로、地方的 固有한 風俗 習慣이 全國的 習慣的、俗慣으로 變化한다。이리하야 一地方은 全國的의것으로、一國은 全世界的의것으로 統一、融合、普遍化하나니 이 世界의 政治、經濟、文化의 統一化、普遍性을 主張하는 理論이 生하는 所以이다。그러므로 鐵道의 發達은 그地方 或은 그 國家의 文明의 程度를 測定하는 바로메타라고도 稱하게되엇스니 萬一 朝鮮도 現在와가튼 趨移로 鐵道網이 建設되다면 未久한 將來에 文明國의 班列에 參加할것이다。

三

그러나 再考하면 鐵道의 普及이 반듯이 文明을 齎來하는 것만이 아니다。鐵道의 새로 敷設되는 곳에는 새로운 機械的 生産品이 潮水와가티 밀려들어 그地方의 原始的 手工業을 破壞하고 이 地方의 農産物及 工業原料는 餘地업시 輸出되어 그 地方 經濟의 疲弊를 招來한다 먼 例는 그만두고 過去 二三十年間의 朝鮮의 社會經濟的 變遷過程을 보면 能히 斟酌할것이다。勿論 鐵道가 敷設되기 때문에 그 沿邊의 地價가 騰貴되고 그 地方 穀價、其他가 高價로 放賣되야 不勞而得하는 사람이 업는바는 아니지만 大多數의 사람은 生活의 便利化의 反面에 貧困을 催促하는 結果를 招致하얏다。

四

그러므로 鐵道의 普及은 一利一害가 잇스니 이 民度에 맛지 안는 鐵道의 急速한 普及은 도리혀 弊害를 이르킬 念慮가 만타。그러므로 當局은 이 民度를 생각하야 適宜한 建設에 注意하여야 하겟거니와 民衆들도 이 影響의 重大한데 鑑하야 一層 自重할 必要가 잇지아니치 못할것이다。그러하고 鐵道建設地를 推想하야 地價의 오르기를 기다리는 半投機的 行動에만 나갈것이 아니지만 이 鐵道普及策이 産業上、國防上 旣定方針으로 되는때에는 그 影響의 큰것을 생각하야 오즉 便宜와 安逸과를 깃버말고 經濟的 文化的 變化에 어떠케 對處할가를 深甚히 考察 實行할것이다。

英對日共同抗議 米佛伊三國에提議

佛蘭西政府가拒否한데對하야 좌이나프레스紙痛擊

北中密輸問題

【上海八日發同盟】北中密輸問題에關하야英國政府는米佛伊三國政府에 對하야 共同으로 對日抗議를 行하기를 提議하엿다는倫敦으로부터電報는 各方面의注目을惹起하고잇는데 俄然이對日四國共同抗議에對한 第一反響은 南京政府와 特殊關係가잇고 또某國과도 連絡이잇는 것으로 알리어잇는 英字新聞좌이나프레스紙社說로 나타나 左와 如히論하엿다

英吉利政府가 今回米佛伊三國에對하여 行한 要請은 吾人의 크게 歡迎하는바이다 그런데 佛國이 此를 拒否한것은 如何한 理由에 依함인지 諒解하기困難하다 日本、佛國間에는 某種의 諒解가 잇다는 說이 傳하나 佛國今回의 行爲는 이風說을 裏書하는것이다 中國의 密輸와如히 忍耐할수업는 醜惡한事件에 直面하야 九個國條約의 一員인佛國政府는 實로 條約上權益擁護를爲하야 列國과 協力할義務가잇지아니한가

對西南策講究次 蔣氏諸要人을招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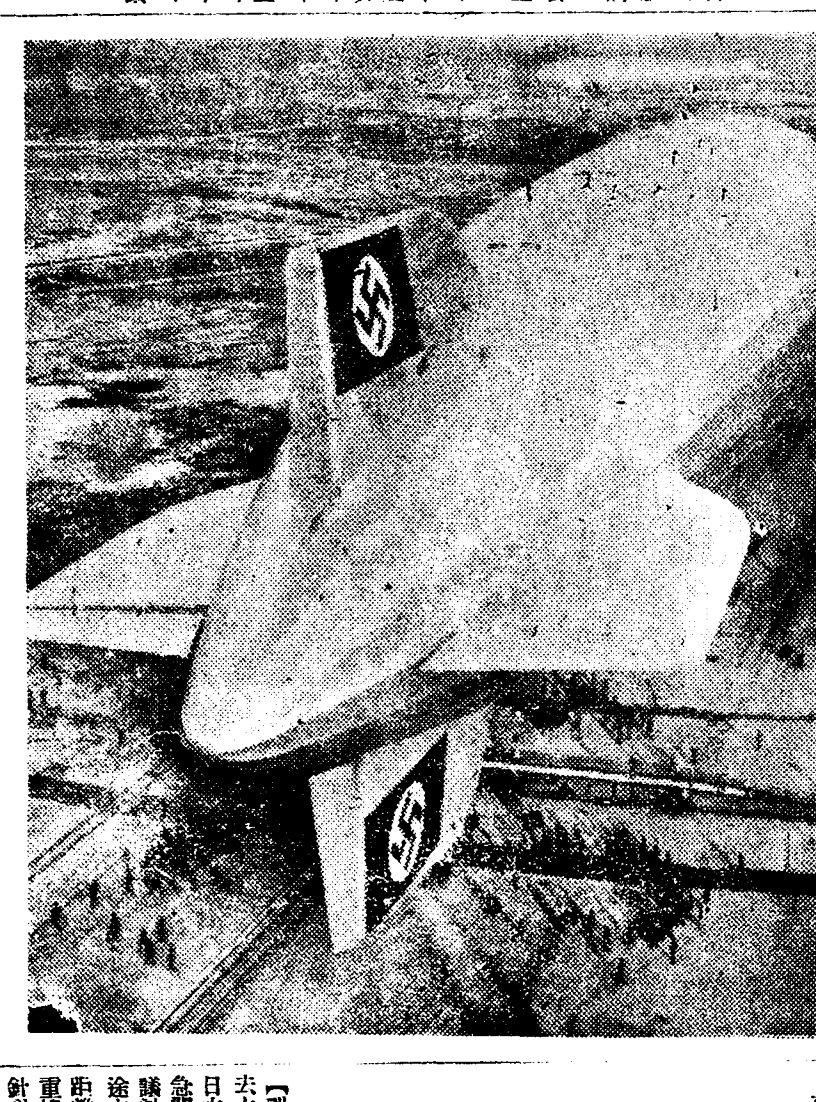
中央의最後的態度決定되는대로

黃紹雄氏南下折衝?

【南京八日發同盟】西南側은 衡陽占領을 企圖하고 一面妥協의 二元的工作을 取할것으로 豫想되는데 當該蔣介石氏는 兩三日前 浙江省政府主席黃紹雄氏를 杭州로부터 招致하는外에 江西湖南方面의 戰鬪에 經驗이 기픈 雲南邊境勦共總司令陳誠氏에게南京入을 命하야 陳誠氏는 六日 漢口에서 楊永泰氏等과 協議한後 同午後八時 飛行機로 南京에 到着하야 蔣介石를 中心으로 極秘裡에 對策을 協議하얏다 黃紹雄氏는 中央의 最後的 態度決定을 기다려 南下하야 西南派와의 折衝에 當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五日 來滬한 楊德昭氏도 八日 南京에 來하야 陳濟棠氏의 親書를 外交部長張群氏에게 手交하고 廣東情勢를 詳細에 亘하야 報告하얏다 蔣介石氏가 武力的解決에 當할는지 或은 政治的交涉으로 時局에對處할는지 現在로는 豫斷을不許하나 蔣介石氏는 事態를 擴大시키지안는다는 見地에서 廣東에 對하야 妥協的態度를 取하야 陳濟棠氏에게 對하야 政治的交涉을 行하고 廣西派에 對해서는 境遇에 依해서는 實力行使도 不辭하고 兩廣各個擊破策을 取할것이 아닌가하는 觀測이 有力하다

蔣、白崇禧氏招請

【上海八日發電通】蔣介石氏는 西南問題解決에 大大的活躍을 繼續하엿는데 八日廣西의 白崇禧氏에게 『卽時北上하야 南京으로오라』고招請電을 發하엿다惟聞하면 右招請電 內容은 西南側의態度를 難詰하고 問題解決에對한 中央의强硬態度를 傳하기爲함이라한다



나치스獨逸의新체펠린號

飛行船이라면 먼저 獨逸체펠린號를 聯想하리만치된 이때에 이番에 나치스獨逸은 다시 新체펠린號라고 할수잇는 巨大한 飛行船『힌덴브르크』號를 建造하엿는데 이飛行船은 五十名의 乘客을실코 歐羅巴에서 아메리카까지 三日以內로 航空하야 新記錄을 지엇다한다 寫眞은 米國레이허스트飛行場에 드러가는『힌덴브르크』號와 此를 歡迎하는『로스엔젤스』號

샤하트獨經濟相 近近쏘피아로向發

【伯林七日發同盟】獨逸經濟相兼 샤하트博士는 來十五日伯林을 出發하야 불가리아首都 쏘피아에 向하기로 決定하엿다 샤하트博士는 同地에서 二日間 滯在하야 불가리아中央銀行總裁와 重要會談을 遂한後 다시 벨그라드를 歷訪할터이다

內務省現內閣의 諸政策實現에邁進

內政改革의主要項目

【東京電話同盟】內務省은 現內閣의 政策을 基調로 드듸어 內政改革 實現化에 進出하기로되어 來地方長官會議에서도 特히 潮來地方長官會議에서도 內相으로부터 全國地方長官에게 對하야 地方行政刷新에關하야 忌憚업는 意見 開陳을 求하는同時에 明年度豫算에 關해서도 넌저 內務行政擴充을 眼目으로編成하고 다시 完璧을 期하기爲하야 可及的 速히 立案하야 今冬의 通常議會에 提案하려고 目下 社會、警保、土木、衛生等各關係局別로 具體化를 急行中이므로 느저도 今月末에는 首腦部會議를 開하고 根本方針을確立하기로되엇다 그런데 目下實現이 期待되고잇는 內政改革의 主要한것은 國民生活의安定、地方行政의刷新、選擧法의改正、地方警察의確立、土木國策의樹立、地方稅制의改革等으로 그主되는 要項은 大體 如左하다

▲國民生活安定

一、疾病不安除去를爲한 醫療制度의樹立

一、農村을 目標로한 議會政策 施設의 充實

一、失業救濟事業의 擴充

一、國民健康保險法의 制定

一、救農費의 增額

一、勞資協調를 目標로한 産業政策의 樹立

一、勞働爭議調停法 災害其他非常時에 對立한 救護

▲東北行政의 改革

一、東北五個年計畫樹立

▲行政財政의 刷新

東電一分增配

【東京電話同盟】東京電燈株式會社에서는 八日午前十時부터 半期決算重役會를 開催하고 當期決算案에對하야 協議한結果 當期利益金處分案(配當一分增의年八分)을 査定하고 來二十五日에 開催할 定時株主總會에 附議承認을求할터이다

八年產米買入申請 三十二萬七千石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 昭和八年產政府米買入申請六日까지의分은左와如한바 本米穀年度累計三十二萬七千八百三十四石四斗로 地方別은左와如하다(單位石)

東京	二、五六一
大阪	一六〇
門司	四三六
新潟	四四
名古屋	一、一六三
小樽	三三六
仙臺	一、七一六
神奈川	七六
神戶	二四八
岡山	四七〇

文相首相을訪問

【東京電話同盟】平生文相은 八日正午 廣田首相을 訪問하고 省內人事其他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思想保護監督法 十一月부터實施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의 協贊을 經한 思想保護監督法案은 卽時 上奏御裁可를 어더 公布될터인데 施行에 關해서는 目下 司法省에서 準備中이다 實施期日은 十一月一日로決定되엇다

今井田總監今朝歸京

特別議會에 政府委員으로 出席하고 議會終了後도 繼續하야 中央과 重要政務에 關하야 協議하기 爲하야 約四十日동안 滯東中이던 今井田政務總監은 池田秘書官帶同 八日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歸京하엿다 一旦 官邸에 들어가 少憩後 卽時 登廳하야 宇垣總督에게 滯東中의 用務를 報告하엿다

肅鐵斷行키爲해 鐵道全體會議

【東京電話同盟】未曾有의國鐵疑獄에 對處하고 鐵道刷新과 今年度國鐵事業協議를 行하기爲하야 招集된 全國地方鐵道局長會議는 八日午前十時十分부터鐵相官邸에서 開會하엿는데 村上東鐵 日淺大鐵外 地方各局長과 直轄各鐵道改良事務所長이 參集하고 本省側에서 前田鐵相、田子高安兩次官、平塚事務官以下 各局長 監察官、官房各課長이 出席하야 爲先前田鐵相이 綱紀肅正에 關하야 現業官廳으로서 가장注目하여야하겟다는 旨를 强調하고 또 鐵道振興에 關하기로 訓示한後 事業經營의 合理化와 交通政策의 確立等에 關하야 積極的敢行하야

一、工事請負에 關하야 從來行하던 紛糾를 一掃하려고 素朴한 方法을 設定할것

一、交通行政의 刷新

一、國鐵從業員의 能力化

一、國鐵과 民衆의 親密等에 關하야 前田鐵相、各局長과의사이에 여러가지 意見을 交換하고 正午에 一旦 休憩하엿다가 午餐을 가치하면서 午後도 會議를 續行하엿다

增稅에關해 朝鮮은白紙

今井田總監談

增稅問題는 十二年度豫算編成上의 最重要問題가되어 中央政府에서는 銳意 그具體的方法에 關하야 成案을 考究中인데 朝鮮에서도 同問題에는 異常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그런데 右에對하야 歸任한 今井田政務總監은 如左히 朝鮮自體로서는 增稅에 對하야 白紙態度라고 表明하얏다 卽

朝鮮의 稅制整備는 昭和九年의 第三所得稅創設에 依한 稅制整備와 이에 뒤니어 十一年으로부터 實施된 地方稅制整理로 基本的으로 確立하야 局面은 一新될대로되엇다 一面 朝鮮으로서는 增稅가 必要한 事由가 現在로는 업다 그러나中央政府의 稅制를 基本으로한朝鮮이기때문에 日本內地의合理的改正이 잇스면 當然 이에 追隨하게될것이다 一般會計와 特別會計調整、國防費分擔問題等에서 某程度의 考慮가 必要할는지도 모르나 現在로는아직考慮해보지못하엿다

罷業前途樂觀不許 政府解決은無望

勞働總同盟의指導權喪失로

爭議團說服은疑問視

【巴里八日發同盟】블룸 首相은 罷業解決案의 總括에 基하야 八日 午前裁定案의 細目을 決定發表할 豫定인데 政府當局이 期待하는대로 全國的大罷業이 四十八時間以內에 解決될는지 그與否는자못 疑問視되여잇다 勞働總同盟代表는 解決案에서 爭議團에對하야 復業을 斡旋할것을 公約하엿스나 總同盟은 當初부터 罷業에 對한 指導權을 喪失하엿스므로 爭議團을 說服할 可望은 薄弱하다。代表自身도 七日夜半 內相邸를 辭去할에 際하야 『確信은업다』고 明言한것인만큼 前途는 極히 樂觀을 不許한다 內相官邸의 協議會도 모르는체 北部地方에서는 七日朝來 罷業擴大의 徵兆가잇서서 巴里 쏘아ー르 紙의 報導에 依하면 金銀行從業員은 八日 罷業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한다

濠洲의新關稅 旣定方針維持

村井시드니總領事에對하야

政廳正式回答을通達

【멜보른八日發同盟】濠洲政廳은 去六日 通商擁護法發動에 關한 日本政府의 警告를 接受한 緊急閣議를 開催하야 그對策을協議한後 때마츰 사스콘地方視察途中에잇는 라이온首相과도 長距離電話로서 聯絡을 取하야 慎重協議한結果 新關稅를 旣定方針대로 維持하기로 決定하고 六日 그正式回答을 村井시드니總領事에게 通達하엿다 그內容은 大要 如左하다

一、關稅引上、輸入許可制의 實施는 日本品阻止의 目的이 아니오 國內産業保護의 手段에 不過하다

一、濠洲도 人絹市場의 折半을 製品의 大部分은 依然 日本品에 解放한다

一、日本政府가 濠洲品의 關稅에 變更을 加하는데 對하야 濠洲政府는 구다여 抗議치안흐나 濠洲政府는 今回의 新關稅가 日本品을 目的으로하지안는以上 끗까지 新機構를 固執하겟다

一、그러나 日本政府에서 友好的解決案을 作成하는데잇서서는 濠洲政府로서도 勿論 그것을 希望하는바이다

貴族院各派 改革氣運濃厚

近衛貴院議長談

【沼津電話同盟】貴族院議長近衛文麿公은 阪神地方의 軍需工業視察次 八日午前九時 東京驛發 『燕』號로 西下하엿는데 車中에서 如左히 말하엿다

特別議會가 終了하엿스므로 政府는 드듸어 革新政策을 樹立하기爲하야 各種調査會를 設하야 立案에 着手하는모양인데 單純한 聲明에 終하는일이업시 이革新的氣運에 乘하야 꼭 實現을 하도록 希望한다 改革範圍도 相當히 廣範圍에 亘할모양인데 成案을 어더 立法에 옴기기까지에는 相當한 努力이 들것이다 餘 沼津書記官長과 會見한데 關하야 新聞은 貴族院改革問題에 關聯하야 여러가지 觀測을 가진모양인데 그것에 關하야 別로 나의 意見을 듯고저온것도아니오 議會後이라 여러가지 말이나서 貴族院改革問題도 그一話題가 되는데 不過하다 改革案을 作成하는데 關해서는 이後 調査會를 設하겟지만 貴族院令의 改正에關해서는 議院法改正과 別個의것을 作成하고싶다 問題는그편이 成案이 쉬울것 갓다 貴族院改革에는 貴族院各派는意向이 적다고들 말하는모양인데 貴族院改革에 特別히 意向이 稀薄한것가튼일은 決코 업다

滿洲國과協力 航空部隊充實

【東京電話同盟】近代戰에잇서서의 空軍의 威力은 益益 重要視되어 世界列强은 方今 그擴充에 彪大한 豫算을 計上하고잇는 現狀에 鑑하야 日本陸軍에서도 滿洲國政府와 協力하야 特히 航空部隊의 充實에 用意하고 每年度豫算에 相當額의經費를 要求中이며 昭和十二年度以降 六年計畫으로 實施될 軍備充實豫算에서도 航空隊充實이 重要한 部分이 되어잇서서 陸軍飛行機의增加、空軍部隊人員의 增加를 圖할 方針인데 滿洲事變前에 約六百臺라고 發表되엇다 陸軍의 保有機는 事變中民間獻納機와 陸軍自身의 製作品도 加하야 現在로는 約一千臺에 達하여잇스며 各旣設航空部隊의保有機增加는勿論 日滿共同防衛의見地에서 滿洲國도 亦是相當히 增加하엿스며 一方 人員에 잇서서도 少年航空隊、轉化將校의增加 航空豫備將校制度에 依하야 逐次 增加되고잇는 現狀에 잇스므로 마츰내 今後部隊의 新設에 着手할 時期가 되엇다 新設飛行隊의 候補地로는 北方第一線維持確保의 必要에서 北海道 東北地方中 一個所 中部工業地帶維持를爲하야 京阪神地方 或은 中國地方一個所 臺灣 九州中 一個所는 가장 必要注이 잇다고 有力候補地로 꼽게되엇다

明年度朝鮮豫算

總額三億六千萬圓을突破?

四千萬圓增加

昭和十二年度朝鮮特別會計의 豫算編成은 今井田政務總監의 歸任으로 드듸어 編成의 基本方針을 決定하야 具體的着手에들어가게되엇는데 이編成目標는庶政一新의 新時潮에 비추어 伸張해가는 朝鮮에 適當한 積極的新規事業도 開始할 豫定인데 來知事會議와 産業調査會에서此等各項에 亘하야 綜合的慎重協議를 行할터이다 이結果 十二年度豫算은 十一年의 三億二千八百萬圓에 對하야 約四千萬圓을 增大하야 三億六千萬圓을突破할것으로 보고잇다

不穩文書取締法 法相協贊精神說明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에서論議의中心이되던 不穩文書等臨時取締法施行에 關해서는 司法省에서 準備中이던바 겨우 方針이 決定되어 八日 司法長官會同席上에서 林法相으로부터 說明한바잇섯다 卽 同法運用에當하야 司法當局은 議會의 審議經過와 協贊의 精神을 尊重하고 慎重한 態度로서 臨하야 不法하게 言論自由를 束縛함과 如한일이업도록 當該關係官의 誠慎을 促하는同時에 一方 怪文書 橫行에 依한 禍害는 測量할수업는바잇서 社會不安의 重大原因이 되어잇스므로 此種文書는 取締를 嚴히하야 撤底的 鎭壓을 期할것을 强調하엿다그리고 同法은 施行細則의 具體化로서 다시 取締當局關係官에게 司法省으로부터 指示訓示를할터이다

時事漫畫

새우싸홈에 고래등 터진다드시 夫婦爭議에 病든 子息이 놀랄과이요!

北京學生聯合會 抗日運動을計畫

哈府放送報道內容

日本軍用列車의爆破、北中學生團의 排日運動激化와 아울러 蕭天津市長의 責任辭職이되어 方今 北中은 極度의混亂狀態에잇는데 去四日 하비름스크라디오는 北中事件에 對하야 如左한 重大報道를 하고잇다

北中學生團은 北京近郊에서會合하야 抗日運動에의 一般大衆動員에 關하야協議하고 北京學生聯合會代表數十名은 去二日 三班에 난후어 第二十九軍兵舍를 訪問하야 北京撤退를 中止하고 北部河北省에 머물러잇서서 中國領土防衛에 當해주기바란다고 同軍將兵을 喧動하엿스며 一方 第二十九軍將校間에도 秘密히 會合하야 排日運動支持를 決議하고 끗까지 北中을 撤去하지말고 境遇에 依해서는 日本軍과의 一戰도 不辭할 準備를하는中이다 그런데 此等抗日團은 相互提携하야 明六日을 期하야 北中一帶에 排日總罷業及 一大데모를 計畫中이라고云云

右放送은 明白히 中國共産黨의 抗日共同戰線統一政策이 相當히奏效되고잇는것을 示하는同時에 南京政府의 冀察政權攪亂策 蘇聯을爲始한 英米의 思惑도잇서서 各種의 謠言이 亂飛하야 北中은 全혀 危機線上에 잇게되엇다 蕭市長一派의 總辭職으로 宋哲元氏의 沒落을 招來하리라한다것과如한風說도잇스나蕭氏一派의 辭職을 契機로 宋氏는 華北明朗化를爲하야 非常한 決意를가진모양으로 冀察政權當局今後의 對策은 北中治安維持上 看過치못할 重大問題라고重視되고잇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矢野秘書官帶同 八日午前十時五十分京城驛發 約十日間豫定으로 濟州島視察에 赴하엿다

▲藤澤友吉氏(株式會社藤澤友吉商店社長)入京人事次來社

▲中田幸三郞氏(同京城支店支配人)同上

夕刊後市況 八日

◆大阪 短期 無記◆

大新	七三八〇	(一〇高)
鐘新	一五五三〇	(三〇低)
日産	七二八〇	(一〇低)
東新	一三五〇〇	(不變)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大三五〇〇 先限 大五九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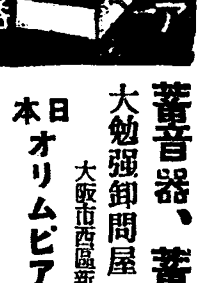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九一〇 先限 五七六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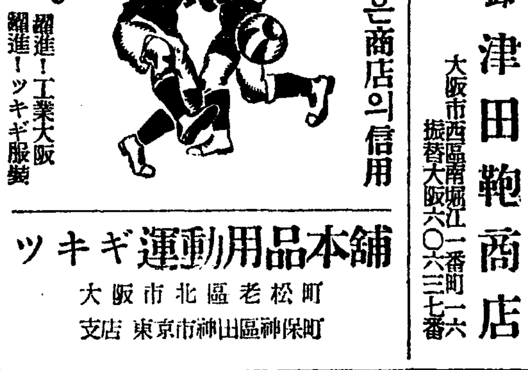
大阪著名問屋案內

家庭用諸金物卸 アルミニユーム 銅眞鍮亞鉛琺瑯 日用家庭諸金物 商報進呈郵券四錢送付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大阪銅器合資會社 電話船場(四二 七番)(四二 三番) 振替口座大阪五四八番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 초 가 루) 新興 合 番椒粉 月美人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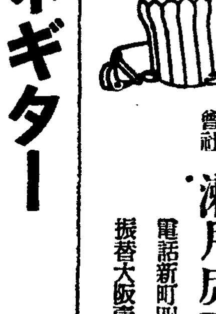

オリムピア 蓄音器 蓄音器、蓄針、附屬品 大勉强卸問屋 大阪市西區新町南通四丁目六 日本オリムピア蓄音器商會 電話 三一二九四番 同業者에限型錄進呈(郵券二錢要)

鞄革雜貨製造卸 各種鞄卸 津田鞄商店 要四錢切手商報進呈 大阪市西區南堀江一番町一六 振替大阪六〇六三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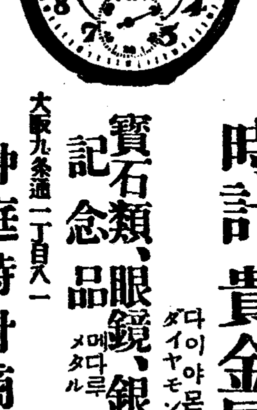
夏物運動服品揃 TSUKIGI SPORTING GOODS& 全般服裝製造卸 良品仕入은商店의信用 カタログ進呈 躍進!工業大阪 躍進!ツキギ服裝 
ツキギ運動用品本舖 大阪市北區老松町 支店 東京市神田區神保町

僅少한資本으로 其日부터容易히장사가되는 고무活字及各種고무印(商報進呈) 고무活字 當場에고ム印名刺을組版하야 卽賣可能 到處에서 大大好評 賣行多大 製造元 吉川商店 大阪市南區鍛冶屋町六八 電話南二三〇九番·振替大阪五五九一

信用잇는 卸のデパート 日本百貨店均一卸協會 大衆向各種雜貨 新商報送呈·要四錢 頭雜ナ各種商品仕入モ裕ニ本商報一冊ニテ足ル 大阪市東區久寶寺町二丁目 小間物ビル

農用ポンプ 
合資會社 瀨戶虎吉商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五丁目 電話新町四一七九番 振替大阪壹一七三七番

シレネギター 最良ノ品質ト最廉ノ値段!! (營業者に限り卸型錄呈) テカキオルガン・軍隊ラツパ NMI·管絃樂器·ハーモニカ 製造卸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樂器店 電丸五一二三番

東洋에서第一조흔물건을제일헐하게팝니다 時計、貴金屬 寶石類、眼鏡、銀器 記念品 다이야몬드 ダイヤモンド 메다루 メタル 
商報送呈 五錢要 大阪九条通一丁目八一 仲庭時計商店 電話西(四三七〇七番) 振替大阪八壹一四一番

京城驛前"朝日타시" 運轉手五十名總罷業

不平不滿의要求條件八項目 警察은事態嚴重監視

旋風帶에들어간 自動車業界!

"택시ー"제로부터"메ー터ー"제로 바뀌면서부터 일반영업자들의 수입은 늘엇스나 반면에 운전수들의 그것은 갑자기 주려지니만치 불평이자못 노파가고잇서 시내에 헤러저잇는 수다한 운전수들사이에는 벌서부터 국부적동요가 보히기시작하야 일반영업자들은 물론 경찰에서도 이를 엄중경계해 나려오든중 또 여드렛날 오후네시반쯤되여 시내 고시정(古市町)에잇는 서울제일의 『조일(朝日)』"택시ー"에서 운전수 쉬흔명──모다 조선사람──이 일제히 여덜가지 조건을제출하고총파업을 단행하고말엇다 이사건발생과 동시 소관본정서(本町署)고등계에서는 때가때이니만치 시각을 지체치안코 곳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사건의 주모자를 엄색하는중이다. 이번사건은 적어도 지난오월"메ー터ー"제실시 이래 일반운전수들의 싸히고 싸힌불평의 한모퉁이가 허므러진거와 마찬가지이어서 이영향이 달은운전수들에게 미치지 안흘것인가? 염려되는동시 일반영업자와 운전수들에게 커다란충동을 주고잇다.

(사진은 차고아페 서서성거리고잇는 파업단의일부)

이다 더구나 이번파업사건의 화근이 되것은 그자동차부지배인인 암본항인(岩本恒人)이라는 사람의 태도에대한 분개로서 그는 운전수들에게 언사와 행동이 몹시 불순하여 운전수들에게 어떤조고마한 과실이라도 잇스면 더퍼노코 『그만두고 나가달라』는등 가진 학대를 해오는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파업사건 발생과동시 그들이나 회사측의 태도가 모다 강경해서 아프로 사태는 크게 주목된다

支配人態度不遜과 收入激減이主因

雙方態度자못强硬

조일택시ー운전수들의 요구조건은 별항의 여덜까지로서그중 중요한것이 본봉삼십원을륙십원으로올리라는것,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라는첫, 지난번다섯사람의 해고된 동료들을 복직시키라는것 그리고 사고를일으키는 어떤경우라도 그전책임을 회사측에서 지라는것등이다. 현재그 자동차부의 제도는 본봉삼십원에 소위 무사고수당십원과 개근수당오원등 도합사십오원평균에다가 한달매상고 삼백오십원되는사람에게는 특별히 그전액의일활을 준다하지만 한사람의매달수입은 평균 그금액에 달할수 업스므로 그규정은 지상공문에 지나지 못하므로 결국 잇스나 업스나 맛찬가지인데다가 더구나 지각에대한 벌측이잇서 일분마다 오전에 그이상은 오분마다 십전식을 더밧게되므로 갓득이나 과히로동을 하고나서피로에 부다끼는 그들이나만치할수업서 지각을 자조하게되는지라 결국은 그들의 고정된수입을 도리혀 감삭당한다는것이다 그전『택시ー』제도때에는 이런까다로운규정과 제한이 업슬뿐더러 본봉은 지금과가티 삼십원이엿지만매상 등급이라는것이 다섯등까지잇서 일등에는 십원, 이등에는 팔원, 삼등에는 륙원, 사등에는 사원, 그리고 오등에는 이원을 각각주어왓슬뿐 아니라 주인도 묵인해주든 소위 도중수입이라는것이 잇서 그것만도 매월평균 백원은 되엿섯기때문에 생활의 여유가 상당햇지만 이것이 업서지면서부터는 생활을 도저히 지탕해갈수업다는것이다

"死活問題이다" 讓步는無可奈何

某運轉手談

『우리들의 파업은 가장 정당하다고밋습니다. 장차회사측에서 안드러준다면 어찌들하겟느냐고요? 물론우리도 양보할수업습니다. 그래 사람이되여가지고야 그런 과중한 로동에 적은 수입을가지고 살수가잇습니까? 대우개선도 개선이려니와 지난번애매하게해고된 동무네사람의 복직을우리는 끗내 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회사의 암본(岩本)지배인의 우리에게대한 언사와 태도를 고처달라는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종이아닌바에 그다지 말끗마다『해라』에『이놈』이니하고 하게할것이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회사의운전수들 문제뿐만아니라실로 전조선수천 수만명종업원들의 크나큰 사활문제입니다。』

"讓步할餘地업다"

岩本支配人談

『사장이 공주에출장하고 업기때문에 내마음대로 어떠라고 말할수업다。그러나일은 아프로 원만히 해결될줄밋는다。회사측의 태도말인가? 그것은 추호도 양보할여지가 업다고 생각한다。』

要求條件

一、현재운전수급료(給料)삼십원을 륙십원으로 올릴일

二、지난번에 무리하게 해고한 종업원네명을 복직시킬일

三、사고비용(事故費用)은 운전수의 과실유무를 불고하고회사당국이 부담할일

四、매일평균복무시간 십구시간을 십칠시간으로 단축하고나흘에하로씩 공휴(公休)를주든것을 사흘에 한번씩으로 개정할일

五、역구내부종업원(驛構內部從業員)에게 휴게소를 설치해줄일

六、차고부종업원(車庫部從業員)은 나흘일하고 하로숙직하는데 침구(寢具)가 업기때문에 병이 자조나서 결근자가 만흐니 희생심으로 아프로는 침구를 준비해줄일

追加要求條件

一、금번 진정에잇서 대표자로 인정되는자는 절대로 해고를 하지말일

二、아프로도 회사당국이 종업원을 해고또는 처분을할때에는 종업원일동의 량해를어들것과 또는 종업원의 의사를 절대로 존중해줄일

運轉中止의 驛前 朝日탁시陣

醉客의自殺未遂

칠일오후 네시쯤에 때마츰일요일이라 등산객등으로 번잡하게된 인왕산(仁旺山)성벽우에서술이대취하야뛰어내린사나이가잇다 부내 황금정(黃金町)이정목일백팔십오번지에사는 김병구(金秉九)(?)는 이날아침에 가족과 싸운후 술이대취하야 전긔장소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다가 서대문서원에게 들킨 설유를 바덧다하는데 기적으로 별로 부상한곳은업다한다

明倫町에交通事故

시내계동정(桂洞町)륙십칠번지의철호 안병태(安秉泰)(?)는작일요일 새로한시경에 명륜정(明倫町)사정목사십번지의 압길에서 화물자동차에치여 엄플기타에전치열흘가량의상처를입고 수은정(授恩町)전병훈의원(全秉勳醫院)에 입원치료중이며 가해자는 돈암정(敦岩町)륙백오십이번지 태평자동차상회(太平自動車商會) 운전수 리원재(李院宰)(?)이다

小火兩件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관내에 저근불두건ー ▲인의정(仁義町)칠십사번지 김민수(金敏洙)(?)의집에서 지난 여섯날오후두시에 불이나 약십분후에꺼다 손해오원

▲신당정(新堂町)삼백사번지 광희주택사무소(光熙住宅事務所)에서 칠일밤열두시경에 불이나방한간을 태웟다 손해이십원가량

水原公立農業 七月一日부터開校

농업교육기관의 확충을 목적으로 수원유지들의 긔부금십오만원을 림시비(臨時費)의 재원으로하야 일즉이 경긔도청학무과에 설립인가를 신청중이든 수원공립농업학교(水原公立農業學校)는 드디어 작일부로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바덧슴으로즉시 일형면영화리(日荊面迎華里)에잇는 식림묘포(殖林苗圃)를중심으로한 오만팔천평을 교지(校地)와 실습지(實習地)에 충당하야 교사신축에 착수하는동시에 생도를 모집하야 오는칠월일일부터 개교키로 결정하얏다한다 그리고 교장은 전임교장이 발령될때까지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야촌(野村)교장이 겸무한다는데 입학시험규정은 다음과갓다

▲入學願書締切 六月十八日

提出處 京畿道廳學務課內 水原公立農業學校長殿

▲入學試驗 六月二十日(土曜日) 六月廿一日(日曜日) 六月廿二日(月曜日)

▲試驗場 水原公立普通學校

◇延專對佛蘭西艦隊籠球戰

物價奔騰의暴威에 勤勞大衆長嘆息

昨年同期보다 平均一、二割高騰

저금리정책(低金利政策)이니 군수품(軍需品)경긔이니하는 통화팽창정책에따라 돈들이싸지는 한편에 물건갑시 그비례로 올려만가서 그러지안하여도 목구멍에풀칠하기가 어렵든 박봉생활자와 날품파리하는 근로계급의 생활은 나날이 핍박되야 생활보장문제는 바야흐로 사회문제화하려는현상이다 모든물건갑시모다올른중에도 생활의 필수품인 쌀, 나무, 고기, 채소등일용품을 비롯하야 피복등속이 일만하 갑시올려 평균작년에보다 일활오분내지 이활가량을 올려서 일반대중의 생활비는 일반으로 이할가량이 늘엇스나 봉급이나 일급은 판에못박은것처럼 그대로잇서 결국봉급생활자는 이할가량의 감봉을 당한것과 마찬가지 궁상이다 랭면, 탕반, 설렁탕갑은 벌서올렷거니와 리발료도 사십전으로 올리려고하는중이며 목노술집에서도 술과안주갑을 따로바드려고 하고잇다 고기도 전에는 한매오전매도 팔더니 요사이에는 십전매도 팔지안하는 고기집이잇고 쌀갑슨 천정을몰르고 날마다 뛰어올려 작년이만때 한가마니에 십삼원오륙십전하든것이 지금은 십오원오륙십전을하며 시탄갑도 작년보다 약이할오분사서 대중의 생활을 여지업시위협하고잇다 이에작년이때와 비교하야 갑이만히오른 필수품몃가지를 드러보면 대개다음과갓다

▲米穀 約一割五分
▲柴炭 二割
▲雜貨 一割ー二割
▲洋服類 約一割
▲肉類 二割
▲菜蔬 約一割

自動車殺人

【永登浦】지난 오일오후 네시경에 시내"조일(朝日)택시"경(京)제구천삼백륙십륙호를 운전수 시내청진정(淸進町)이백구십삼번지 손삼철(孫三哲)(?)이가 조종하야 수원(水原)으로 부터 도라오는길에 시흥군서이면안양리(始興郡西二面安養里) 명학동(明鶴洞)부근을 지나다가 마친 동행하고잇든 동리 리천옥(李泉玉)(?)로파를 치여 인사불성이된것을 즉시 룡산 철도병원(鐵道病院)에 다려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효과업시 일곱시간만에 절명하엿다는데 원인은 운전수의 부주의인것이 판명되여 목하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서 엄중히 취조중이라고한다

清津自動式電話

【清津】오랫동안 기다리든 자동식전화는 그간준비에 분망중이든바 요사이에와서 준비가완료되얏슴으로 오는이십팔일 오전령시를귀하야 전부자동식으로 곳처 일반통화를 개시하기로결정하얏다한다

새로建築할때에 알아두어야할知識

市街地建築取締의解說 ④

四、집웅은 耐火材料또는 不燃材料로 이어야함 『모름탈』漆、漆喰塗類는 道知事가 支障업다고 認定한때에限하야 쓸수가잇슴 가와집웅은 『引掛棧』瓦類를 使用하거나또는 가와를『野地』에 緊結식힐것 又는 社寺建築物、假設建築物、茶房又는四阿類의 집웅으로 土地의狀況에따라 支障이업다고認定하는때는 特例를認定할수잇슴

五、建築面積이 六百六十平方米(二百坪)以上의 建物에는 建築物見棄、物干棄物等은 屋上工作物의 높히가四米이나 또는 그面積이十平方米를超過하는것은不燃材料로 만들거나 又는 더퍼야함

面積六百六十平方米以內마다 防火壁을 設置할일 그러나

(一) 外壁、床、집웅及階段이 耐火構造인때

(二) 不燃材料로 建築한때

(三) 特別한事情으로 道知事의許可를 바든때는 防火壁을 設置안하여도無妨함

六、防火壁의構造는

가、耐火構造로할것 但木造又는 木骨造의建築物은 鐵筋『콩크리트』造又는 鐵骨造의 防火壁을 設置할일

나、兩端은 外壁에達하게할일 但木造建築物은 近接한木部로부터 〇、三米以上屋外에 突出케할일

다、上端은〇、四五米以上屋外에 突出케할일 但耐火構造인 境遇에는 그必要가업슴

라、防火壁構造는 設置할境遇에는 그部分의 壁厚은 벽돌또는 石造인때는 〇、二二米 鐵筋『콩크리트』造인때는 〇、一二米以上으로할일

七、煖爐構造는

가、床의『膠積』上部에잇는 木部는 煙道와 〇、一五米以上의間隔을둘일

나、床은 煙氣나『까스』가 室內로새지안토록할것

다、焚口에는 不燃材料로서 둑경을할일

라、焚口의周圍는 〇、四米以上으로 粘土類、金屬又는 硝子以外의 不燃材料로서 築造할일

八、壁附煖爐及固定『페치카』의構造는

가、木造又는 木骨造의 建物의 壁附煖爐는 鐵筋『콩크리트』造又는 鐵骨造로할일

나、壁附煖爐의 爐胸又는 固定『페치카』는 堅牢한 土臺우에 두되 木造建物인때는 上部를 積出하지말일

다、固定『페치카』又는 新旋을 使用할 壁附煖爐는 焚口下및 그前方〇、三米左右 各〇、一五米以上部分의 床을 其他의 壁附煖爐는 분口및의 部分床을 不燃材料로 꾸미되 그미테는 〇、二四米以內에는 燃質材料를 쓰지말일

라、煙突의 屋內部分은 鐵筋『콩크리트』、石、煉瓦類로서 꾸미고 外壁의 둘레는 鐵筋『콩크리ー트』造又는 煉瓦造인 때는 〇、一五米以上 其他는 〇、二二米以上으로 하고 爐道에는 土管을쓰거나 또는『세멘트』몰탈을 칠할일

마、煙道의 屈曲이 百二十度以內인때는 그屈曲部에 掃除口를設置할일

九、濫突、煖爐、竈、沐浴湯竈等의 煙突構造는

가、不燃材料를쓸일

나、金屬製의 煙突로서 天井裏屋根裏又는 床下에 잇는部分은 金屬以外의 不燃材料로 싸울것

다、金屬製煙突은金屬以外의不燃材料로 싸우지안는限 木材其他의 燃質材料와 〇、一五米以上의 間隔을두어야한다

라、煙突은 屋上〇、六米突以上突出식혀야하는데 煉瓦又는石造의部分은 補强施設을 안하는限 一米突以上은 不可하다

마、煙突의 바로우에 처마가 잇는때에는 그처마로부터〇、六米以上을 떼지안흐면 안된다

十、獨立煙突의 構造는 前項에 依하는바게(前項『라』를除함)左記에依하여야한다

가、高一五米가 넘는것은 鐵造又는 鐵筋『콩크리ー트』造로 支線을 가지지안는 構造로할것 그러나 假設物로 道知事가 認定하고 期限付로 許可한것은 關係치안다

나、鐵造又는 鐵筋『콩크리ー트』造以外의 煙突로 高가九米를넘는것은 鐵材로서 補强施設할것

다、土管煙突은 高가九米以下로하고 또그接合部에『모르타르』는 使用하고 支柱를緊結할것 그러나堅固한 鐵製支柱를有한것은道知事의 許可를어더서十五米까지는 놉힐수가잇다

十一、汽罐、營業用沐浴竈其他多量의 燃料를使用하는 設備에 附屬되는煙突은 高가一五米以上(接着하는地面으로)口徑은〇、二五米以上이어야한다 그와同時에搖灰場의構造가厚가〇、六米以上의 石煉瓦『콩크리ー트』와가튼 不燃材料又는 粘土로 맨들일

나、뚝경은 鐵板其他의 不燃材料로 맨들일

다、建築物의 外壁이 耐火構造가 아니면 그外壁에서〇、五米以上의 距離를둘것

十二、노피 二十米又는 처하노피가 十五米를 넘는建物의主要構造部는 耐火構造로 하지안으면 안된다

十三、노피 二十米를 넘는建物에는 避雷針을 設置하지안으면안된다 但特히 道知事의 許可를 바든 때는 상관업다

三南과西北에甘雨 中部는小雨程度

仁川觀測所氣象豫測

【仁川】매일가티 들려오는 각지의 한발로 세상인심은 점점 흉흉하야지는형편으로 겸으는구름장이 모다니며 비가 올듯올듯하다가는 개이고 개이엿다가는 또흐리여 사람의 간장만녹이고잇다 이에인천관측소발표를듯건데 일본 내지가 림우기(霖雨期)에잇슴으로 조선각지가흐리고잇슬뿐아니라 이번에는 남조선과 서조선에 다소큰비가잇서 해갈도될듯하나 장마는 아니라고하며 중부지방에는 소우(小雨)가 잇스리라한다。말만흔 병자년이라 과연관측소의예측대로 고대하든 감우가나리울지? 한발이 계속될지? 서울 식끌 룡틀어 속만죄일뿐이다

珍奇한記錄! 佛艦軍力戰不及

百二十一對二十六의스코어 延專"원싸이드게임"

佛蘭西東洋艦隊旗艦라모피켓號對延專의 國際籠球戰은 八日午前四時부터 張權、金振秀兩氏審判아래 開始되엿든바 오래만에 마지하는 外國人이라 이들의 妙技를 보려고 모혀든 觀衆으로 超滿員을 이루엇다 珍客佛艦軍은 未熟한 戰法으로 延專牙城에 肉迫하려고 力戰奮鬪하엿스나 엄청난 實力의差는 엇지할수업서 延專軍連續得點하야 前半六十四對六、後半에五十七對二十、結局百二十一對二十六으로延專軍大勝하엿다 이날 佛艦軍은 敗戰의苦杯를마시면서도 오히려屈치안코 最後까지 軍人의 精神을遺憾업시 發揮하야 好印象을 남기엇다

延專 121 (57 64 … 20 6) 26 佛艦

【延專】	反	前	後	位置
洪文吉	0	26	14	F
郭相勳	0	12	5	F
李容鎬	0	12	10	F
金應鎬	0	5	12	C
方元淳	0	4	6	G
車均鎬	0	1	2	G
金程信	0	4	6	G
張完徵	0	0	0	G
計	0	46	57	

【佛艦】	前	後	反
렛룰ー스	4	10	0
크로또	2	6	0
보노롱	0	0	2
발젠	0	4	0
벳델레	0	0	1
計	6	20	3

全日本蹴球大會에 普專蹴球遠征

來十三日京城出發

普成專門學校蹴球部에서는 來十九日부터 三日間東京에서 開催되는 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에 朝鮮을 代表하야 來十三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出發 列車로遠征에 오르게되엿는데 同軍은再日京城運動場에서 全日本制覇를爲하야 猛練習을거듭하고잇다 그리고遠征團 一行의 陣容及日程은다음과가트다

◆遠征團日程

▲六月十三日午後十時五分京城驛出發 ▲同十四日 午前八時三十七分 釜山到着後練習 ▲同十五日午後一時五分 宮島到着後練習 ▲同十六日午後三時二十五分東京到着後練習 ▲同十九、廿一의三日間大會出戰 ▲同廿三日午後一時半 東京驛出發 ▲同廿五日午前八時京城驛還

◆遠征團陣容

▲部長李肉學 ▲마네저ー金容驩 ▲主將裴宗鎬 ▲選手李相再 朴奎禎 玄孝燮 洪完植 金炳禧 文二峰 李錫濱 宋基命 朴孝濟 車銘濟 林楊植 孔敬來 鄭用主 裴宗鎬 金容驩

東星商業籠球勝

仁川商業對 東星商業籠球戰은七日午後五時十分부터 京師코ー트에서 열리엇는바 結局三十七對十의 大差로 東星勝하엿다

東星37 (20 17 … 3 7) 10仁商

中等武道大會 廿、廿一日兩日間

城大豫科主催의 第十一回 全朝鮮中等校武道大會는 來廿、廿一兩日間 清凉町大豫道場에서 開催하려는데 參加申請期限은 來十五日午後五時까지라고한다

高工·高農武道優勝

第十一回全朝鮮專門學校武道大會는 七日午後九時부터 光化門通警察官講習所에서 開催되엿든바柔道에는 京城高工軍이 劍道에는 水原高農軍이 各各優勝하엿다

早慶水上對抗戰

【東京電話同盟】早稻田對慶應對抗水上競技는 七日午後零時四十五分부터 神宮풀에서 行한바卅四對卅二로 早大가이겻다

龍中6 善隣1

京城中等學校野球리ー그 龍中對善隣戰은 七日午後四時卅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崔仲正(球)、孫濟俊、安藤(壘)三氏審判下에 龍中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六對一로龍中勝하엿다

龍中	000204000	6
善隣	000001000	1

京工11 京商10

京城中等學校野球리ー그 京商對京工戰은 七日午後一時十三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田上(球)、龜井、大森(壘)三氏審判下에 京工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十一對十으로 京工勝하엿다

京商	513000001	10
京工	502002011	11

맥스·뻬어君 째즈에轉向

【부라덕】에 世界重量拳鬪選手權을 빼앗기고 『루이스』의 一擊에 敗退한『맥스·뻬어』는 最近째즈歌手로 轉身하야뻰드를組織하고 룸프댄스에도出演하는等 스테ー지巡業을 하고잇는데 그의 親弟인 黑人『루이스』에 對한『화이트호ー프』로되여잇는『빠디·뻬어』도 이따금뻰드에 演出한다고하니『뻬어』一家는 어듸까지라도 푸레이뽀이라고 볼수밧게업다

李奎煥判定勝 올림픽送別拳鬪

全關西아마튜어拳鬪聯盟主催의올림픽代表送別拳鬪戰은 六日午後七時부터 大阪甲子園庭球場特設링에서行한바 이에出戰한 李奎煥君(朝鮮所屬·中東)은 關西大學의強豪 白井澄(시라이)君을 判定으로손쉽게이겻다

【플라이級】中野(代表)判定 大山(O·A)

【밴탐級】橋岡(代表)判定 手島(O·A)

【라이트級】永松(代表) KO 大濱(維橫)

【웰터ー級】李奎煥(代表)判定 白井(關大)

"올림픽參加" 六千名突破

申請期는廿日限

【伯林五日發同盟】今夏에 열릴伯林올림픽大會에 參加申請手續을完了한 各國選手團은 지난三日까지에 四千四百十八名을突破하야잇서 여기에다 役員千百六十二名을 合하면 實로五千五百八十名의 多數이다 그리하야 申請期限인 七月廿日까지에는 主催側인獨逸을 除外하고도 無慮六千名을 突破할것으로 豫想되여 本部役員宿舍의 狹隘과올림픽村의 汜濫等으로 關係各委員들은 더욱多忙中이다

京城醫專優勝 大學、專門野球戰

大學、專門校野球第一部優勝校對第二部優勝校決勝…京城醫專對京城帝大戰은 八日午後四時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佐藤(球)富田、橋口(壘)三氏審判下에 醫專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十對五로 京城醫專軍이 優勝하엿다

醫專	404000200	10
城大	000005000	5

今日의運動

▲陸上 十日本會主催 陸上代表選手練習會 午後五時 京城運動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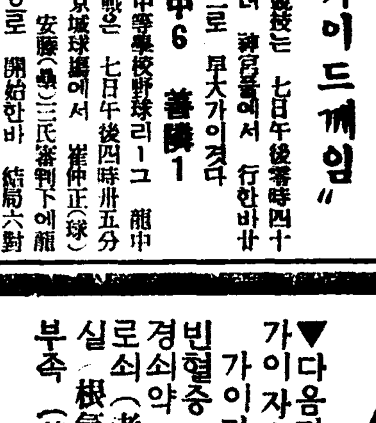
보음보양 젊어진 강정약 가이자ー!

▼다음가트신 분은 가이자ー를 쓰시오

가이자ー의효능

빈혈증(貧血症)신경쇠약(神經衰弱)로쇠(老衰)근기상실(根氣喪失)영양부족(榮養不足)성적신경쇠약(性的神經衰弱)보혈강장제(補血强壯劑)약은환약이오동서양정제약、약갑십원、오원、중세가심하면십원짜리를쓰시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

림질 대하증 방광병엔 구로벨이 제일



▼다음가튼 증세에는 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의효능

남녀만급성림질(男女慢急性淋疾)대하증(淋毒菌起因帶下症)뇨도염(尿道炎)고환염(睾丸炎)(산증)방광염(膀胱炎)섭호선염(攝護腺炎)녀자오좀소태(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림독성제증(其他淋毒性諸症)

약갑 특제구원、만성용오원、급성용오원 부인오좀소태에삼원이오 일주일분이나 삼원이나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당일로비밀히보냄니다 지방송료는 선금이면십오전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매독엔 푸로다ー가 제일이오

이런분은 쓰시오 남녀의 국부가 헐고가려운데 눈이희미하고팔다리가쑤시고 목이쟁기고 머리가빠지며 여긔저긔종기가나고 코가헐고 멍울이슨데는 푸로다ー를쓰시오

푸로다ー의효능

매독(梅毒)、창독(瘡毒)、태독(胎毒)、습독(濕毒)、선천매독(先天梅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麻質斯)

약은환약이오구감이니거나위장을안상합니다 약갑 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중한분은보통병과다르니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 보내드림니다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만일모르는약이든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로 병에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점이 잇거나 마음에안맛거나 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車場側(五) 제일큰백옥양관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代表電話光③三二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京城版

中央線起點中心 清涼里一帶土地熱

뿌로커ー들의暗躍이可觀

大地主東拓、不放主義固執

대경성의실현시가지계획령(市地計畫令)의 발포를앞으로지음 서울안의 땅갑은 날로뛰여올라 가는중인데 특히 수일이래로는 중앙선(中央線)의 긔점이청량리(淸凉里)로 그리고 경춘철도(京春鐵道)의 긔점이 왕십리(往十里)로 결정됨에 딸아 이두군데 땅갑은 말할수업시 올라가고잇다한다。

즉 종래로 청량역을 중심으로한 대학예과(大豫)부근 길거리로는 작년 가을까지 고작해야 매평에 최고 삼사십원 하든것이 중앙선이 이리로 확정되엿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쪽의 대지주가 되는 동척(東拓)가튼데서는 물론이ㄴ지주나 압날의 노픈갑을 예산하고 절대로 팔지안는 주의들을 가지고잇는데 설사 판다는사람이 잇다해도 매평에 최저오십원으로 최고일백오십원까지나 엄청난 갑들을 불으고잇다한다。

또 한편으로 왕십리역 근처를 볼지라도 평일에 최저사오원으로 최고이십원밧게 안하든 것이 경춘철도의 긔점이 이곳으로 내정되엿다는 소문과함께 작고올라가서 지금은 최저 이십원으로 최고지배원까지나 갑들을 불으고잇는 현상이다。

어쨋든 지난봄까지도 시외이든 이두군데 지대가 시내로 편입되면서 바로 이가티 노픈땅갑을 보이게된것은 특유한현상으로 아프로 얼마나 올라갈것인지?!뿌로커ー!!들의 암약과 함께 주목된다한다。

京紡職工溺死

【永登浦】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이백오십륙번지 경성방직(京紡)직공 김봉운(金奉順)(一三)은 공휴일을 리용하야 칠일오후영시반경에 친구네사람과가치 영등포방학정(放鶴亭)및 시내에서 미역을감다가 실수하야 물속에 들어가게 때방을당한것을 네시간만에 건저내엿는데 한달에두세번엇거나 말거나한 공장생활의 피곤을 잇고저 그와가치놀너나갓다가 이가치불행을 보게된것이라한다

十二歲少女의出家

【陵谷】본적을 경성부홍파정(紅把町)이십륙번지에둔 봉덕흥(奉承潤)의 이남 봉덕흥(奉德興)은 소화구년십이월경부터 고모부되는 고양군지도면화정리(高陽郡知道面花井里)리원옥(李源玉)방에서 부양되여 오든중 지난오월상순경에 종적을 감초고 오늘까지 소식이 묘연하야사방으로수사중이라한다

病妻幼子를바리고 出家한薄情郞

仁川署에서搜索中

【仁川】병든 안해와 자식을 바리고 출가한 박정랑—인천부송현리(松峴里)칠십삼번지 시탄상(薪炭商) 전백복(全百福)(三九)는 지난 오일 오전륙시경 그이웃 신상균(申相均)이의 자전거를 타고 어대로인지 종적을 감초고말엇다는데 집에는 병든 안해가 어린 자녀를 다리고 출가한 남편을 원망하며 신음하고잇는 정상을 볼수업서 전긔신씨는 자긔의 자전거가 업서진것은 하여간 병자를 구하기위하야 전긔 박정한 남편의 수색원을 인천서에 제출하얏다 한다

開局라디오體操勵行

【開城】요사히 개성우편국(開城便局)에서는 오전칠시사십오분부터 남녀직원일동이 매일락라무에 종사하는청년도 십사오분되오체조를 시험해본결과 운동가량만 리용하면 될수잇는바지이 극히간단하면서도 흥미잇고 망자는 누구를 물론하고 만히 별로 과격하편이 아니여서 직참가해주기를 바란다한다

東大門署管內 接客業者診斷

날이 점차로 더워가 여러가지 전염병발생의 건수가 느러갈야는 사실에비추어 그예방의하나로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그관내에잇는 일천에갓가운 접객업자(接客業者)에게 팔일부터 오는 십팔일까지 열흘동안 동서구내 도장(道場)에서 건강진단(健康診斷)을 일제실행한다고하며 접객업자는 자진하야진단을 밧기를 바란다고한다

仁川商業會議所 新會頭는吉田氏

【仁川】인천상공회의소(仁川商工會議所)보결의원으로 당선되엿든 길전수차랑(吉田秀次郞)씨는 승락을주저하고 잇든중 오일밤에수임하기로 승락하엿다는바 금후회두는 아마길전씨가 당선될듯하다고한다

日曜日의交通禍

일요일에 일어난 거리의불상사—시내정동(貞洞)십이번지김원강(金源岡)의 셋재딸 소자(小子)라는 다섯산먹은 아이는 칠일오후여섯시오십분에 그의집압에서 그때마침『본정팔시놀전수 김창석(金昌錫)(三一)이 운전해가는 자동차에 바치여 삼주일동안 치료바들 중상을입엇다 자동차가 대한문(大漢門)쪽으로 진행하든중 별안간에 그아이가 길에 뛰여나왓기때문에 채정거할여가도업시 바치게된것이라한다

칠일오전열시 이십분에 시내림정(林町)이백사십일번지 사는 서삼(西森)『미데』라는륙십사세로파는 시내황금정(黃金町)사정목 삼백십번지 압전차길에서 차금상(車金相)(二三)이 운전해가든전차에 바치여 올흔편 쇄골(鎖骨)이 부러젓는데 약사주일동안 치료를 바들 중상이라한다 그는전차길을 가로건너려다가 바친것이라한다

칠일 오전아홉시에 시내신당정(新堂町)삼백사십륙번지 김경남(金警男)의셋재딸 순애(順愛)라는 세살먹은 아이는시내황금정(黃金町)칠정목오번지압 전차궤도에서전차에바치여 약일주일동안 치료바들 상처를입엇다그아이가전차길로 거러나오는것을 보고 운전수는 급히정거하엿스나 약간바치게된것이라한다

中國料亭取締 銅製酒器를쓴다고

【仁川】인천의팔만시민을 상대로 료정(料亭)과타음식점을 경영하는음식영업자중에서 중국인(中國人)이가장중요한 지위를가지고잇는데 공중위생을 도라보지아니하고 극약(劇藥)을석어서 그릇접시와 주전자 배갈(白酒)주병들을 동(銅)으로만드러서 사용함으로 인천서에서는 이는위생상조치못하다하야 중국인의 음식점을 취체하는동시에엄중단속하리라한다

運動競技

各學年別陸上

昨日夕刊繼續

【走高跳決勝】▲一年 1朴鍾星(一高) 一米四〇 2秋本(龍中) 金炳浚(普成)以上一米三五 4韓武相(一高) 成樂仁(道商) 以上一米三〇 6李元周(普成)金基煥(一高) 杉江(京師) 橫尾(京中) 沈賢澤(一高)以上一米二五 ▲二年一部 1中(京商)一米四五 2崔載鎬(一高)一米四〇 4長野(京野) 5金俊德(京師) 6崔炳尙(普成) 以上一米三五 ▲二年二部 1長井(龍中) 一米四〇 2崔春鎬(一高)一米三五 2熊川(京工) 4浦田(龍中)金炳國(京工)以上一米三〇 6李德基(一高) ▲三年一部 1金漱鎬(養正) 一米五五 2裵善圭(普成) 一米五〇 2白星基(一高) 一米四五 4申忠善(一高) 5佐藤(京商) 6朴鍾鎭(普成)▲五年一部 1閔丙瑄(一高)一米五五 2林基潚(同上)一米五〇 3杉尾(龍中) ▲五年二部柳永一(道商)一米五〇 2李德昌(普成)一米四〇 3谷原(道商) ▲演補1金漢燮(一高)一米五五 2李在完(一高)以上一米四五 【走幅跳決勝】▲四年一部 1張東殷(一高)五米七〇 2韓仲範(養正)五米六九 3李在馥(養正)五米六三 4鹽谷(龍中) 5李彬榮(中央) 6崔熙善(普成)▲四年二部 1具田(道商)五米二七 2李德昌(普成)四米八六▲五年一部 1金昌煥(一高)五米八七 2金善益(一高) 五米七五 3中川(龍中)▲五年二部 1根本(京商) 五米一一 2(伊藤)四米六一▲演補 1坂元(京師) 六米一 2金漢燮(一高)五米九八 3李在完(同)五米四二 【投圓盤決勝】▲三年一部 1張基虎(普成)三六米九一 2金在璜(普成) 三三米八九 3朴鍾萬(養正)三二米七一 4愼玄晟(一高) 5小島(京商) 6閔元植(養正)▲三年二部 1伊藤(道商)三〇米五四 2安見(京師)二七米六五 3吳命昊(一高)二六米八二 4兪大基(京師) 5松岡(龍中) 6金錫彰(一高)▲四年一部—柴(京工)二三米三六 2甲宗淳(養正)二三米三三 3浦圭顯(養正) ▲四年二部 1堀(京商)二〇米九五 2沖本(京商)一九米一七 3布施(道商) ▲五年一部 1張聖壽(養正)三五米四五 2白承旭(養正)三三米六七 3姜永善二九米七一 ▲五年二部 1佐藤(道商)二四米五五 2安瑋煥(普成)二〇米六八 【三段跳決勝】▲四年一部 1韓仲範(養正)一二米五〇 2馬鍾颺(養正)一二米三七 3張東殷(一高)▲四年二部 瀨山(京師)一一米八八 2伊藤(京商)一〇米六四 3杉(京商) ▲五年二部·1具田(道商)一五米 2上谷(道商)一一米三八 ▲五年一部 1武藤(京師)一二米三四 2金昌煥(一高)一一米九七 3安賓(京師)【棒高跳決勝】▲四年一部 1李鍾植(普成) 二米三〇 2金大龍(一高) 3南長熙(同上)二米一〇 ▲四年二部 1大谷(京商)二米一〇 2大西(同上)二米一〇 ▲五年一部 1蘇鎭南(一高)三米六〇(朝鮮中等新記錄) 2上水(京師)二米七〇 3金成元(一)【投槍決勝】▲四年一部 1野中(龍中)四四米五〇 2金範鎬(一高) 三八米五六 3徐相鎬(普成)▲四年二部 1林善瑋(一高)三八米 2藤樹(京商)二八米五五 3沖本(京商) ▲五年一部 1大井(龍中)四五米一六 2鎌倉(龍中) 三九米二五 3金應洙(中央)▲五年二部 1村上(道商)二七米二〇

◇學年別陸上競技에 優勝한 第一高普팀

우리들의 學園들이 (21)

啓星普校篇

十字架聖塔아래 雨順風調자라난啓星

한손엔빠이불 한손에는敎科書

고이길너낸七百英才

종현(鍾峴)마루턱을 성지로 삼아 하늘을 찌를드시 반공에 소슨 성탑(聖塔)은 아츰저녁으로 흘러내리는 장엄한종소리와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언제나 평화의 축복을 하고잇다

이 숭엄한 십자탑을 중앙에 모시고 그좌우량편에는 옥일중정의 힘을 자랑하는듯이 근대적 건축이 느러저 잇다。

크다란 정문 안으로 한발작을 옴기면서 좌우편에 보이는 이층양옥이 바로 계성보통학교 외편건축이 남자부요 오른편이 녀자부라고한다

가진수란을 다당하고 가신놈를 속으로 거려나온천주교는 고종(高宗)시대 처음으로 선교의안정을 엇게되자 그교리를 전도하는한편으로 문화개발의 제일선에나서 명치삼십구년 종현마루터에 신문화도장을 건설하고 이를 서당이라고하엿다한다 이것이 현재의 계성보통학교의력사적서곡이다

『아는것이힘이라』는 표어 밑에 당시 교장 최봉섭(崔鳳燮) 씨는 한손엔빠이볼을들고 한손에 교본(敎本)을 들고 조선 신문화사의 첫페이지를 장식하엿든것이다

리혜엇든 당시 선교사『뻐아별』씨는 악김엇시 서당의기초를 확립하기위하야 수만원 재력을 이서당에밧치어 계성서당의 첫 거룩한 남달리 순조로운 발자옥을 힘잇게 밟어왓다

이리하야 이곳저곳에서 모여드니는 약이사십명의선비들은 외팔에평화의깃발을 오른팔에 신문화의깃발을날리고 그들의힌찬 글소리는 명랑하게울려 넷터우레에 기피잠자고잇는 청년들의머리에 경종을 울리게되엿다

날을지나고 해를 거듭하는동안에 서당은점점 충실하여가며 명치사십이년 구한국정부는 새로운 학교인가를 하부하엿다 이로서 서당은 학교로 비약하고 일홈은 사립계성학교로 밧귀엿다

내용이형식을 규정한다는 원측으로보아 계성의이미약적발전은 계성의 질적발전을 모름즉이 표현하고잇다고할수잇다

계성의성장은 즉이땅의 성장이다 충분한 재력과 우수한인재를 품에안은 계성은 이리하야 순조로운성장과정을 밟버왓다고한다

조혼 토질과 충분한 거름만 제공하면 씨는스스로 발육하야 크다란열매를 매저주는것이자연의법측 이라면 계성의 금일은 이미이때에 약속되엿든것이라고 할수잇다

이리하야 대정구년에는 남자세학급 녀자세학급 모다륙학급이되고 그이듬해인 대정십년유월현교장 박준호(朴準鎬)씨가교장에취임하엿다고한다

그후 일취월장하야 교세는확장되고 새로운 교육령이 발포되자 대정십삼년사월 지정보통학교의 인가를어더 이에계성보통학교라는 새로운 단장을하게되엿다

이래 해를 거듭하는 사이에 입학지원자는 해마다 격증하야 학교당국에서는 새로운 확장을 계획하야 내년에는 이만오천원으로 교사를 증축하야 남녀십팔학급으로 확장하려고한다엇지 칠분일이니라

이와가티 발전에발전을 거듭하는게성은신구제합하야 칠백여명의 영재를우리 사회에밧치고 현재남녀 팔학급에 륙백 팔십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열네분선생이 성심성의로 우리사회의참다운역군을만들려고 주야애쓰시고잇다한다

(사진은 교사와회장)

新掲載 曉は遠けれど 竹田敏彦

満天下待望の大傑作小説いよく出づ!!

戀か友情か? 危機を孕む若き男女の多難な行途!

…激しい生活戦線に躍り出た雑草の如き青年尾男は、入社試験の第一日に既に敗れの運命を見た。貧に悩む一家の窮状を見るに忍びず愛人早苗は意を決して妹と偽り、重役の放蕩者、若き青年紳士『敏一』に採用方を願ひ出た可憐さ、而もこの一事が、後に来る深刻な悲劇の発端にならうとは!面白い、近来の大傑作!! 第一回

特別讀物 股旅小説大傑作集

▲仁義 因果脇差 三上於菟吉

▲涙の懺悔 若樣源太 小島健三

▲戀の旅鳥 首賭丁半 下村悦夫

滅法面白い大傑作づくめ キング 素晴しい七月號

▲人氣者の珍談縮尻くらべ

…漫談、漫才、映畫、劇、漫畫等々各界一流の人氣七花形の、讀み出したら笑の止らぬ縮尻珍談くらべ面白い〜!

▲小川商工大臣出世物語

▲水野錬太郎氏漫画問答

▲日本ダービー競馬血戰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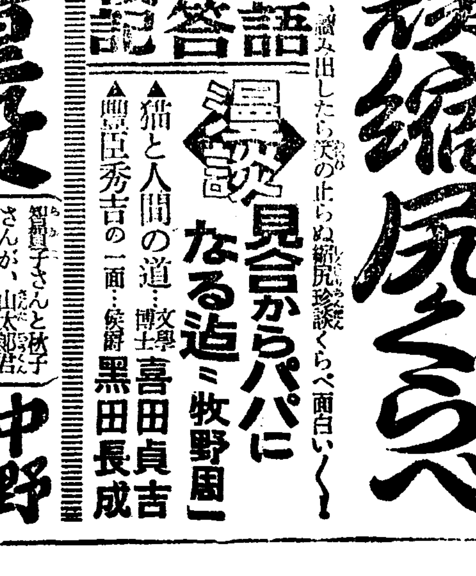
漫談 見合からパパになる迄 牧野周一

▲猫と人間の道…文學博士 喜田貞吉

▲豊臣秀吉の一面…侯爵 黒田長成

面白い面白い 陽氣な漫畫大レビュー館

▲滑稽小説 坊ちやん重役 中野實



風雲急!蜿々三千哩の大秘境を語る! 露満蒙の國境踏査實記

今や大問題の國境、東亞の危機を孕む蜿蜒三千哩の國境線の正體はこゝに發表された。刻下何人も見逃せぬ決死の踏査大實記

世界旅行家 布利秋 満鮮旅行家 中村喜次郎 満鐵調査係 村田豊治

▲評判小説 光の漣 久米正雄

喜劇 離婚騒動 金子洋文

▲近藤勇と坂本龍馬の眞剣大試合

▲食道樂 天ぷらを語る 三輪善兵衛

▲武俠戀愛 彦四郎實記…山本周五郎

▲悲壮 忠犬と上等兵…大上哲夫

▲連載講談 信夫の常吉…神田越山

▲怪奇探偵 贋札紳士…横澤千秋

愉快の王國

人の力か!神の力か!百十八名中たゞ一人助った話 悲痛凄惨の漂流實話

探偵大實話集

▲帝都を震撼した爆弾事件

▲二人組強盗殺人事件

▲人間コマギレ事件

▲現代小説 街の姫君 菊池寛

▲時代小説 子育て文七 川口松太郎

▲現代小説 女よなぜ泣くか 中村武羅夫

▲時代小説 敵討篝火河原 三上於菟吉

▲現代小説 呼子鳥 加藤武雄

▲股旅小説 意地ッ張り地藏 子母沢寛

犯人探し 現金一千円贈呈 大懸賞つき!

N2號館の殺人 甲賀三郎

右の外更に大名案の新計畫名記事等々ギッシリ満載!!

キング七月號お求めはお早く!◆定價五十錢(送料四錢)

東京 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產業

重要產業統制法 爲先洋灰에適用

朝鮮에는特殊事情이잇슴으로 具體的方針을折衷中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重要產業統制法의 施行에 當하야 日本內地는 大體 七月一日부터 實施할 方針인데 外地適用에關하야서는 目下 拓務省과 適用具體方策을 折衷中이다 그런데 朝鮮의 特殊事情으로 適用範圍에 幾多의 難點을 包含하야 日本內地의 同法適用을 그대로 引用할수는 업슴으로 朝鮮에 施行함에 當하야서는 爲先 日本內地業界와 紛爭을 繼續하고잇는 세멘트工業에 對하야 이를 適用하기로 商工、拓務、朝鮮三當局의 方針이 一致되엇다 그리고 外地適用의 具體案에關하야서는 種種의 事情으로 그他의 條件을 가리하기는 困難하야 이에對하야서는 拓務當局에서도 朝鮮의 事情을 다시調査한후에決定할 豫定으로 朝鮮業界를 支配하는 小野田세멘트도 政府의 方針에는 大體 諒解를 與하고 잇다

電力統制具體化

遞信省要綱內容

【東京電話同盟】電力國營은 賴母木遞相畢生의大事業으로서 來月三日 政綱政策決定 閣議에서 現內閣庶政一新의 重大工作의一로서 遞相으로부터 提議할方針下에 遞信省、內閣調査局이協力하야 鋭意立案을急히하는中인데 大體 六月末에 大綱을決定하고 느저도 今秋九月頃에는 成案되리라한다 이제그要綱을보면 如左한것으로 이에伴한

一、發送電線管理法案

一、發送電設備利法案

一、發送電特別會計法案

一、電氣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 四法律案과 實施準備費로서 十一年度 追加豫算案을來通常議會에 提出할터이라한다

一、發電計畫

現在日本의 發電設備는 約六百萬킬로로서 其中 火力發電이 百五十萬킬로 水力發電이 四百五十萬킬로인비 開發水利調査結果에 依하면 四百萬킬로왓트의 火力開發이 可能하다 即가장 合理的인 水力開發을 하면 總體約一千萬킬로의電力을 得할것으로 이開發에 當하야 水力發電及 火力發電 最高水力電의發電量不足補給을爲하야 貯水池滿流水力利用의 施設完成까지의 暫定的方針으로서 火力發電의問題가 必要하나終局에는 全部水力發電力을目標로함 水力利用의不能地方(例하면北海道及九州等)에잇서는 火力發電의 補助에 依하야 이것을 綜合統一하야

二、他產業設備와의關係

灌漑、漁業、流木治水、風致와의 關係에잇서는 各其施設 又는 補償의方法을 講究함

三、發電水力概況 (單位 萬킬로왓트)

水系	未開發	發電開始	合計
信濃川	七〇	四一	一〇一
旭川	七五	三〇	一〇五
木曾川	五〇	四〇	九〇
利根川	二四	三六	六〇
天龍川	四五	六	五一
黑部川	三五	一〇	四五
庄川	二〇	一六	三六
神通川	二〇	一五	三五
富士川	一四	一四	二八

即二十萬킬로以上의 水系를取하여보면 未開發의水力은 만히잇슴으로 이것을 合理的으로 開發하면 電力이豐富케 될것이다

▲送電計畫

長距離送電은 必然的으로 多大한코스트를 伴함으로 各地域별로區分하야 短距離中繼送電에依함

一、水系의分布狀態로보아 東部北部는 電力豐富 西部、南部는 稀少하다

二、東北、關東、北陸中部地方은 自給自足

三、配給機關에는主로北陸中部로부터送電 送電線은可及的短距離로區分하는 中繼送電方法에依하야 로스防止를圖함

四、中國九州는 中國九州의相互融通利用하야 火力發電에依하야 四國은一部水力 一部火力의方法에依하야 此等地方相互間에잇서서는 送電에 될수잇는대로自給自足의方法에依함 火力發電에는 滿洲炭輸入限度에依하야 今後相當히擴張할餘地가잇다

▲其外配電에就하야서는 務務的高率法과 多數의人員을要하는事實에鑑하야 當分이것을現狀대로하고 다마配電料金은이미十二年度末의 電力料金更改期에 相當한値下를 斷行할 方針인바 右發電의 合理化에依하야 코스트低下及 本法改正에依하야低廉한 電力供給의 目的을達成코저한다

魚油直賣處를 聯合會指定

三菱委託依然大部分

朝鮮鰮油肥水產製造組合聯合會는 六日、八日兩日의 總會에서 正式으로 機構를 整備하고 鰮油肥의 直賣形式 其他에對하야서도 그大綱方針을 決定하얏는바 問題의 魚肥直賣는 如左히 消費處를 指定하야하기로되엇다

一、鰮粕의直賣

(가) 消費者團體에直賣=日本內地全購聯、朝鮮內朝鮮農會、產組等의 需要團體를 限定하야 直賣함

(나) 粉末飼料製造原料에充當하는者及朝鮮內에서販賣하는者 朝鮮總督이 認定한者를 聯合會가 指定함

二、밀의直賣

가、獨逸輸出組合에 直賣함

나、밀輸出業者 그他取引業者를 總會의 認定을 經하야 指定함

이리하야 需要處를 限定하야 直賣를 實施키로 決定하얏슨데玆 一兩年은 三菱의 委託販賣가 依然 大部分을 占하게되엇다

鰮聯總會終了

朝鮮鰮油肥製造業 水產組合會의 第一回臨時總會 第二日은 八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議에 開催하고 諸規程設定의件에 關하야 審議를 行하고 午前中에 終了하얏다

林叢構成品評會

【海州】黃海道內 林野百萬七千町步中八十八萬四十町步는 民有林인바 民間의 造林思想이向上됨을따라當局의 綠化運動도 其効果를 내고잇는바 昭和十年度부터 黃海道當局에서는 年年 林叢構成品評會를 開催하고 優良者에게 表彰하게되여 第二回林叢構成品評會에서 松禾郡內의 表彰된 者에게 四日午後三時半 松禾郡廳會議室에서 表彰狀 及 賞品의 傳達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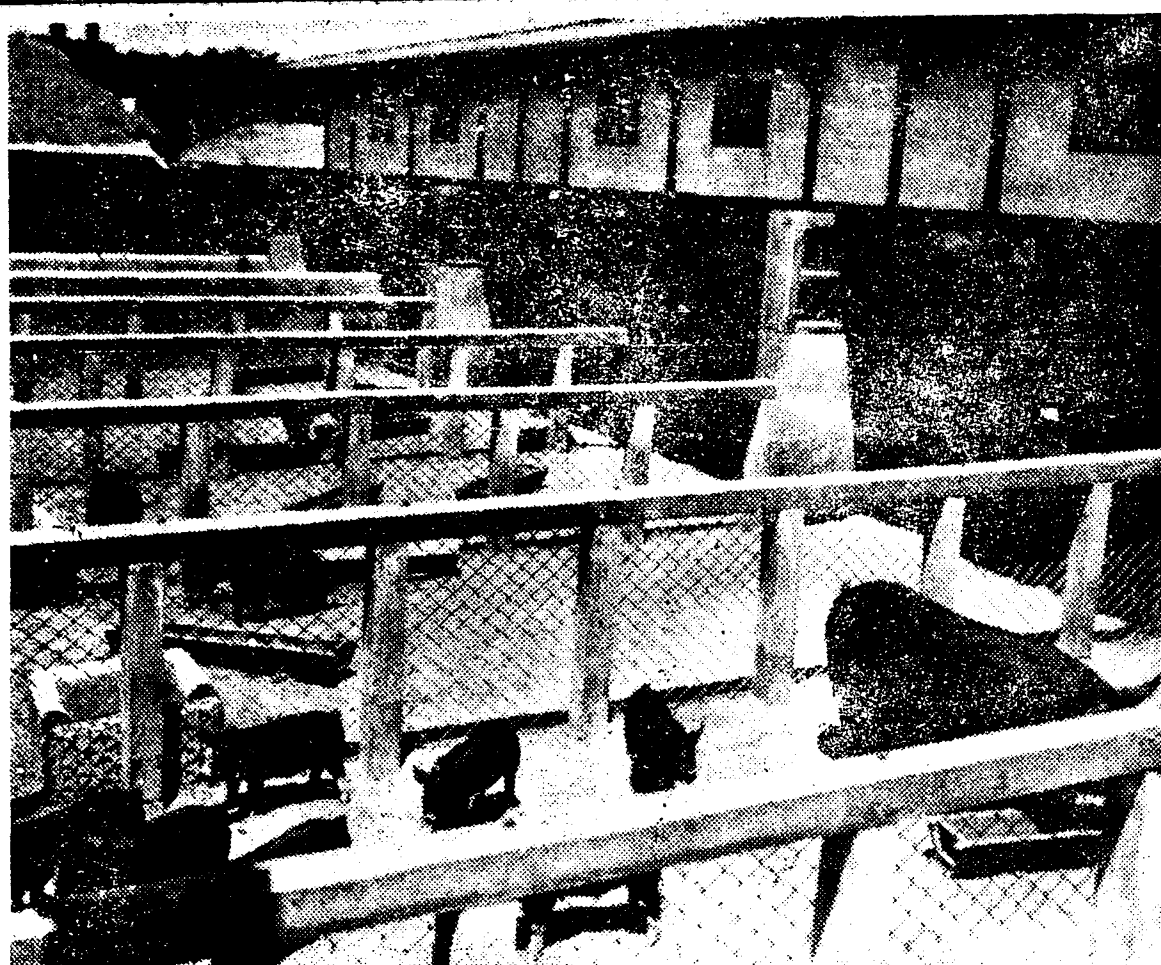
各港汽船取扱 一個月間의噸數

仁川、木浦、群山、鎭南浦及新義州의各港에는 水先案內人이잇서 出入汽船의水路嚮導를 하고잇는데 最近一個月間 그取扱數는 二百六十八隻 그總噸數六十萬七千四百六十六噸에達하고 前年同期의取扱數에比하야 隻數十二隻 總噸數九萬九千四百七十六噸의 各增加이다

永興平野의 開墾熱高調

龍興江修築으로水害는緩和

【咸興】咸南永興平野는 年復年 荒廢되어오는 洪水關係와 一般營農者의 研究不足으로 廣濶한 荒茂平野는 未墾地가 數百町步에 達하엿섯는데 龍興江河修工事가 完成을보게되어 洪水의 被害가 多少緩和되게되어 一般農家에는 破竹之勢로 土地開墾熱이 高調되야 今年度의 開墾面積이 一百八十餘町步나되다는데 이는 全體 水田으로서 億波河畔里 九潭 楷浦 三個里에亘하야 揚水場三十餘個所를 設置하고 大規模의 作業을繼續中인바 이것이 萬若 天候順調로 結果가 良好하면 年產六千餘石은 될것으로 一般營農家의 囑望은 자못 莫大하다고한다



▼어떤깨정한豚舍도잇다

世界市場目標 明太肝油大躍進

咸南水產界의明朗譜

【元山】漸次世界市場으로 進出하여 到處에서 好評을 博하고잇는 明太肝油는 그營養價値가 卓越한 關係로 他品의 追從을 許치안허 一般的으로 愛用되고잇는데 이에 元山明太魚肝油肥組合에서는 그改良向上策에 잇서서 各方面으로 研究中이든바 斯界의 權威者 岡村德次郞氏를 招聘하야 아프로 巨資를 投하야 大規模의 工場을 新築하고 積極的으로 一般需要에 應하리라는바 現在明太肝油는 藥品과工業用品으로 重要한地位를 點하고잇서 咸南水產界의 將來에크게 期待되는 事業으로 今後의 飛躍이 括目할만하다고한다

文川農業狀況 米、大豆가高位占領

【鎭興】咸南文川郡은 面積으로보아 稱히 小郡일뿐만아니라 地形이 擧皆山地帶로 되여잇는關係로 一部永興灣沿岸의 漁村을除한外에 農產物이란 何等의 보잘것이업서섯는데 近來에 一般營農家들은 그生產方法에 對하야 研究에研究를加해오든結果 現在에는 作付面積一萬二千一百七十七町五段으로 어느郡보다도 지지안는 收穫을하고잇다는바 그中에도 米 大豆가 最高位를占하얏다고한다 그를段別로 明示하면 다음과갓다

作物名	作付段別(町)	收穫高
米	三、五三六、八	五六、一三〇石
大豆	三、五五七、五	二一、八六〇
小豆	七〇、六	一、九五五
粟	三、〇四九、四	八、五五四
稗	一、六三七、二	八、九六五
大麥	四一八、〇	三、五五三
黍	一六、四	二七八
蜀黍	三四、二	一、四八〇
玉蜀黍	九〇、六	三三二
燕麥	四六、五	一七〇
蕎麥	五九七、〇	三、三〇八石
特別作物은다음과갓다		
大麻	四八、八	二、一三五石
馬鈴薯	一、〇五三、〇	一〇四、七九貫
胡麻	一四、九	一、〇八貫
靑麻	六、九	二〇、四五貫
白菜	三〇、九	二五九、四五貫
蘿蔔	四三、〇	一九四、三三〇石
荏	二〇、三	八九石
綠豆	三五、三	三五石
菜豆	一八、四	七七
苹果	七、五本	六八、八四貫
梨	三、三〇	三、五一
胡瓜	四四、八	三六、三三貫

(昭和九年末文川郡統計에依함)

利川麥作旱害 枯死의慘況

代播作物도成育不良

【利川】今年利川의 麥作現況은 昨冬酷寒으로 五割以上이 凍害를 蒙하고 春季當局의 督勵下에 春麥、甘薯、馬鈴薯等을 積極的으로 代播하야 麥減收에備코저하엿스나 四十餘日을 繼續하는 旱魃로 代播作物의 成績도 極히不良하며 甘藷苗의 移植조차 困難케되야 全혀 窮境을 緩和할 希望이업고 凍害後 天候順調이여야 五割減收를 豫想케하든 麥作被害는 深刻度가 加重되며 芒種이지난오늘에도結實될 可望업시 一齊枯死의 悲境을 밟을뿐임으로 收穫皆無狀態에 이르지안흘가 憂慮되며 이제곳 降雨가 잇다하여도 七割五分程度의 減收는 難免할것으로보아 農民生活에 致命的一大脅威가 되고잇다는데 利川의麥 平年作은 三三、〇〇〇石이다

海州西北一帶엔 甘雨沛然

各種農作에洽足

【海州】海州郡西北一帶는 連續하야 甘雨가내려 麥作豆太에好影響을주어 豐產이 豫想되는터이며 더욱히 移秧期를 四、五日압두고 그와가티 降雨가잇서 用水가 洽足하야 一般農家에서는 깁버한다고한다

五月朝鮮簡保

朝鮮簡易保險의 五月末現在 契約件數는 日本內地人 二十五萬千二百件 契約金額 五千五百五十萬圓 朝鮮人 六十二萬七千二百件 金額一億八百八十五萬圓 合計八十七萬八千四百件 一億六千四百四十五萬圓으로 千人當은 日本內地人 四十四人 朝鮮人三十件이라한다

京畿道水組區內 米收穫顯著增加

京畿道內의 十二水利組合에서는 昭和七年以降 水組地區內의米作改良을 行하기爲하야 指導員七名을두고 施設費一萬圓餘를要하얏는바 그結果 同地區內의 米作은 다음과가티 飛躍的增收를示하얏다

十二組合의 面積은 九千三百町步의 昭和七年生產高는 段當二石五斗六升、總額二十萬石가량이든바 右施設의結果 十年의總收穫二十八萬一千石、段當平均三石一升에達하얏다 그리고이施設로行한 事項은

一、播種圃의設置

二、모루마리稻熱病消毒

三、苗板改良

四、水稻密植

五、施肥改善

六、秋耕實施

等의 諸項이다

咸南高地帶 農民의慘狀 (1)

李鍾泰

緖言

咸南의山邑인 甲山、三水、豐山、長津等四郡은 地理上으로보아 高地帶다 北으로 白頭山이 巍然히서잇고 그脊梁山脈이 山城을 이룬곳에 崔嵬嶺、南雲嶺 天火嶺、厚峙嶺、赴戰嶺、黃草嶺等連峰이 소사잇서서 平地帶와境界하엿고 河川으로는 鴨綠江이 本流로 西流하는外 그支流로佳林川、虛川江(熊耳江、雲龍江)長津江(赴戰江)等이 北流하고잇다 거기따라 氣候는 大陸的影響을 바더 寒暖의 差異가만라 高原이자 內陸이고 山岳이 重疊하여 同緯度라 할지라도 他地帶에比하야 寒冷이 甚한 곳이다 이러한 僻地도 近代文明이 드러옴을따라 交通은 自動車는勿論이고 吉惠線鐵道工事가 不遠에開通이 된다면 物資相通이 신 나올것이며 咸南平地帶東海岸諸郡은 朝鮮을 貫通한 脊梁山脈의 地勢에 依한 天然的發電地로 朝鮮乃至東洋에 第一가는 工業地帶로 化할것은 自他가 共認하는바이다 이에따라 이곳에 影響되는바클것이니 아직도 無盡藏의 木材와 人力이 밋지못한 鑛物界도 自然 大發展이 잇슬것이며 朝鮮交通의發展을 따라 鴨綠江건너 滿洲의特產物도 이高地帶를 것처 工業地에 大進出될것임으로 압날의 企待가 클것이다 그러나 現下 이地帶는 全朝鮮을 通하야 火田地帶로 有名하다 이곳農民은 最初에는 大槪火田이엿고 또 現在에도 若干의 水田新作地帶를 除하고는 全部가 火田이라고보는것이 至當할것이다 火田은 거이 山중생이인 傾斜地로 數年만지나면 山田으로 化한다 이山田의 所出은 도리혀 火田所出의 半分도되지못함으로 이地帶 農家는 耕作地의 一部分은火田을 가지려한다 이리하야 荒廢한 山田만 耕作하는村落이 이地帶 處處에 散在하는데 그生活狀態는 火田農村보다 더욱 悽慘하다 그實例로 豐山郡은 年年히 農家戶數가 減少하여간다 그런데다 이地帶에는 自然的暴威인 冷害가 連三年襲來하여 간신히사러가던 農民에게 一大慘變을 주고마럿다 筆者는 幸히 只今은 文化의 都會에 잇게되엿스나 本來 이러한 農村에서 나서 그土香을 마시면서 자랏슴으로 이地帶의風俗과 生活狀態를 大略이라도 알고잇스니 暫時라도 死線에서 彷徨하는 故鄕의 農民들을이즐수업다

農民의慘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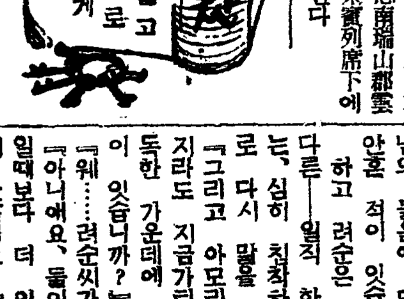
昨夏 歸鄕時 豐山郡熊耳面에서 目睹한바를 잠간 말하면 殆半이 食糧이 斷乏되엿다 그래도 農事는지어야겟고 먹고살어야겟스니 달밤에는 自己기음을매고 나제는 木材企業에 勞役을하며 금음밤에는 捻木을들고 나제는 기음매는 農夫들을 볼때에 참世上은 무서운 苦海요 산다는것이 무엇인가를 疑心할일이엇다 더구나 筆者가 가슴압호게 생각한것은 사랑하는딸을 食糧과 바꾸어먹으며 아들은 到底히 장가들수업서 貞男으로 늙는것이다 그리고 그네들의 生活裏面을 드려다보면 이땅을 빼앗긴 燕麥(귀리)도업서서 俗名(국죽)이라는 국도안이오죽도안인것으로 連命한다 그것은 草根野菜에 소금을넣고 끄리는것 가 滿洲粟을 좀너어서 끄린것 인데 거기에도 滿洲粟의 多寡에依하여 區別이만라 그럼으로 아모릴업는사람의 顔色도 검고푸르면서 生氣가업섯다 이것은營養不足으로 一種의 가난病이다 特別한 事情으로 나는 그때그接 農民들과가티 生活을 하여보앗다 昨年이 또凶年이라 그때 그生活로부터 一年이지난오날도 그悲慘한 情況이 눈에 얼리거린다 이地帶는 山間僻地라 저太平洋건너의 먼 農村消息뜻기보다도 어려운 紙上報道에 依하면 甲山郡內에만 窮家가 二千餘戶라하며 그農民들의 行方조차 잘알수업다하니 이것을 들은者 누가 無心히 생각할수잇스리요 이離鄕民의 살길이어데며 旅費업는 流浪群의 갈곳이 어데인가? 筆者의 떨리는 마음은 鎭定키어려우며 蒼天을우러러 北으로 向하야 한숨기의는 물을 禁할수업다 果然 그네들은 엇지나되어 갈것인가 當局者의 기픈 考慮를要하는바이다

木材業과農民

國境의 大森林은 처음 露國人의손으로 伐採하게되엇는바 그後 日露戰爭關係로 光武十年十月부터 國境의 大森林을 日韓共同經營을하게되여 豆滿江、鴨綠江流域의 國有林伐採와 植林을 目的하는 事業이 始作되고 그機關으로 營林廠을 新義州에 創設하고 그支廠을 咸南甲山郡惠山鎭과 平北慈城郡中江鎭에 置하고 또 出張所를 咸南三水郡新乫坡鎭과 平北江界郡高山鎭에 置하여 只今까지 國境流域開發과同時 大量의 木材를 產出케 되엿다 그리하야 每年 巨金이 이地帶에 散布되엿던것이다 世上文明과는 隔遠되여 살어오든 이곳住民은 科學、時勢形便、社會觀念等은 念頭에두지안코 생기는 收入으로 基礎업는 消化不能의 文化生活을 模倣함뿐으로 滿足하엿다 木材界에 名聲이잇는 人士도 그남긴바 社會의 功獻이무엇인가 萬若 國境의 住民이 先見의 明이잇서 이機會를 善用하엿다면 今日과갓지는안헛슬것이다 남부럽지안홀 社會施設을 가지엇슬것이다 近年에는 個人畜閥의 木材經營도 相當히 進展되고잇는것만큼 農村靑年의 머리속에는 一獲千金의 企業的衝動을 이르키게되엿다 그리하야 그네들은 아모 準備와 事業에對한 周密한 設計도업시 盲目的으로 木材企業은 돈버리조타는信念下에 東西인지도 모르면서 木材業方面으로 進出하니 失敗는定한 理致다 그바게 絕對多數의 破滅農村의 勞働靑年은 潮水밀리듯 木材企業으로 集中하여 比較的 놉흔 賃金을 바더 酒色等으로 浪費하는이가만라 이것이 木材企業이 이地帶住民에게준 膳物이다 이제 木材企業의 內面을 엿보기로하자 勿論 營利를 目的하는 企業이니만큼 營林署의 請負者 其他個人企業者는 엇더케하던지 生產費를 덜드리어 利潤을만히 어드려고애쓰며 中間請負者(部分請負者)中에는 民間使役費를 壟斷하는이가 만타 農民은 이틈에드리어 굴한 損害를 입게되는것이다 이런 關係로 木材企業은 賤業으로 木材業者는 惡人으로 一般民衆은 알고잇다 甚至於 木材企業場所는 처소판이라하고 거기에 從事하는사람을『처소군』이라하여 蔑示하여버린다 事實잇때까지의 民間請負者는 大槪가 設計와 算盤에밝지못하엿고 압날에 對한생각은 처음부터 머리에 업스며 다만우악스러운壓迫的 手段으로 滲忍한 農民만壓迫하여왓다 여기에서 良風과美俗은 侵害를 當하엿고 亂雜한 風氣는 公公然히 流行케되엿다 農業恐慌과 連年冷害로農民은生活困難이 其極에 達하엿건만아즉도一般的으로보아그暗黑이잇스니언제나農民은 光明을보게될것인가。

產◇業◇短◇信

▲瑞山 全州專賣支局瑞山出張所主催의 昭和十年度 煙草耕作獎勵金品授附式을 지난五月二十六日午前十一時 忠南瑞山郡雲山收納場에서 多數來賓列席下에 盛大히 擧行하얏다한다



問 農村에서 副業又는 本業으로 適當한 工業을 下敎하시요 (咸北吉州郡長白面合浦洞 一讀者)

答 中小農村工業問題는 매우 어려운것이나 其地方物產、交通、人文如何에 依하야 檢討하면 반드시 適當한것이 잇을것입니다 京城서 貴地에 무엇이 適當하다고 答할수는업습니다

日用商品市況

漢藥 (京城六月八日現在)

開城人蔘(一斤)

一等		二等	
二〇斤	一〇、一〇	三〇斤	八、八〇
三〇斤	一〇、〇〇	三〇斤	八、五〇
八〇斤	六、八〇	八〇斤	六、二〇

錦山人蔘(一圓)

一等		二等	
四〇斤	三、〇〇	五〇斤	二、〇〇
五〇斤	二、二〇	六〇斤	一〇、七〇

(以下單位斤)

桔梗	、六	黃芪	、四〇
知母	、一〇	黃精	、三五
天麻	一、〇〇	赤箭	、八〇
白朮	、六	蒼朮	、四五
狗脊	、三五	巴戟大	、六〇
遠志	、五〇	仙茅	、五〇
玄參	、二五	地楡	、二〇
丹參	、二五	紫草	、四〇
白芨	、六〇	黃連	一、〇〇
胡黃連	、八〇	黃芩	、四〇
琥珀屑	、五〇	楮苓	、八〇
竹葉	、六	白芥子	、五〇
竹茹	、二五	覆盆子	、三五
乾薑(土)	、八〇	蓮肉	、五〇
龍眼肉	一、〇〇	麥芽	、一五
神曲	、一五	龜甲	、八〇
五倍子	、四〇		
鹿角膠	、五五		
朱砂	五、五〇	硼砂	四、〇〇
石膏	、一〇	滑石	、一〇
硫黃	、一〇	白礬	、一〇
甘草	一束	鹽	小、五五
從蓉	生斤、四〇	法斤、八〇	
當歸	皮斤、六	製斤、五五	
熟地	封品、五五	特品、四〇	
澤瀉	唐斤 一、一〇	上三、〇〇以上	
枳殼	一號 三〇	二號 一六	
鹿茸	一兩 自三、五〇至五七圓以上		
熊膽	一分		三、五〇
麝香	同		、四〇
竹瀝	小瓶		、一三
檳榔	上斤、六	中斤、三	
藁本	、六	柴胡	、四〇
前胡	、二五	防風	、四〇
羌活	、四〇	獨活	、四〇
升麻	、六	苦參	、一〇
白鮮皮	、一〇	延胡	、五〇
貝母	一、五〇	葳蕤	、八
細辛	、四〇	川芎(土)	、三五
白芷(唐)	、五五	白芍藥	、四〇
良薑	、一五	白豆蔲	一、二〇
砂仁	、九五	益智仁	、五五
肉豆久	、九五	破古紙	、三〇
鬱金	、一三	莪朮	、一五
香附	、一〇	藿香	、四〇
澤蘭	、二〇	薄荷	、一五
荊芥	、一五	蘇葉	、一〇
紫蘇葉	、三〇	益母草	、一八
茵蔯	、一五	蒼耳子	、一〇
胡芦巴	、一八	木賊	、一五
麻黃	、二〇	生地黃	、一五
燈草	一、一〇	白葵花	、四〇
牛膝	、一五	車前子	、一五
決明子	、二〇	葶藶子	、一〇
連翹	、二五	附子	三、〇〇
大黃	、四〇	白附子	、一三
大戟	、二〇	半夏	、二〇
南星	、一〇	沙蔘	、一五
生兎絲子	、一八	五味子	、一五
白扁豆	、二〇	瓜蔞仁	、一五
使君子	一、二〇	葛根	、一〇
天花粉	、一八	白何首烏	、四〇
天門冬	、一五	木通	、一三
通草	、一五	金銀花	、三五
忍冬	、一三	肉桂	、二五
桂皮	、二〇	桂枝	、一五
辛夷	、三五	沈香	中三、〇〇
丁香	、五〇	吳茱萸	、八〇
		大腹皮	、二〇
烏藥	、二五	沒藥	、三〇
龍腦	一、二〇		
黃栢	、二〇	厚朴	、二五
杜冲	、三〇	巴豆	、三〇
枳實	、二五	山茱萸	一、〇〇
梔子	、一五	郁李仁	、一〇
金櫻子	、一三	枸杞子	一、一〇
五加皮	、一五	赤小豆	、三五
牧丹(土)	一、三〇		
白茯苓	去脈 自一、三〇至一、五〇		
上白伏神	自二五錢以上至三圓以上		

=天一藥房調査=

◇鑛業權設定·移動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六九一	忠南洪城郡洪東面長谷面	五月九日	靑陽郡靑陽面 代表者 姜□□ 洪城郡洪東面 林□□ 京城府中學町 河□□ 洪城郡長谷面 李□□ 靑陽郡靑陽面 李□□
一〇〇六五	咸南永興郡□□面	同	寧邊郡□山面 代表者 陳□□ 同 洪□□ 新義州□□洞 李□□ 永興郡□□面 金□□
一二三七〇	京畿楊川郡永中面一東面	同十一日	京城府□會町 金德鎬
八四一八	平北宣川郡新府面	同	大阪市東區北濱五丁目 住友合資會社
九六四〇	同新府面、宣川邑	同	同
一二二三八	同東面新府面宣川邑	同	同
一二二九	同宣川郡新府面	同	同
六二	同宣川郡東面定州郡玉泉面	同	同
六三	同	同	同
六四	同	同	同
六五	同新府面宣川邑	同	同
一二二八	同東面、郡山面	同	同
一二三〇	同東面	同	同
一六二六	同新府面	同	同
一六五一	同	同	同
一七四九	同東面、新府面宣川邑	同	同
一二七一一	同泰川郡江西面	同	京城府□□町 李應南
一二八九九	京畿江華郡兩寺面	同十二日	開城郡五峰面 車漢基
九三八七	忠南唐津郡泛川面順城面	同	京城府□□町 金演壎
八七三五	平北熙川郡南面	同	安城郡安城面 朴慶旭
一〇六八七	咸北慶源郡安農面	同	寧邊郡北新峴面 同龍山面 代表者 崔日成 鄭觀
一〇八四四	同穩城郡美浦面	同	慶興郡雄基邑 代表者 中村直三郞 滿洲國間島省 中村豐子 同 中村光男 東京市麻布區 中村五郞 山口縣宇部市 大字ハルエ 東京市麻布區 中村資作 同芝區車町 石坂つたなけ 同麻布區櫻田町 伊藤洋一
一一九八一	同慶源郡安農面	同	同
一二六二五	同穩城郡美浦面、穩城面	同	同
七四四七	同岐川面		
八八一四 七三七四 八〇三九 八〇九九 八七〇七 七〇六六	同寧邊郡上遠面、鶴□面	同	三成鑛業株式會社
八二六九	同上遠面		
八三三六	同鶴□面		
八六二四	同下遠面		
九九八〇 九二一八 七二一五 七九五五 七二三五	同寧邊郡上遠面 同□山面岐川面		
七二三三	同寧邊郡□□面		
八四四八	同寧邊郡□□面鳳山面		
八九五八	同寧邊郡□□面 同岐川面	同	同
一〇一七八	同		
九五七六 七一九一	同平山郡上月面		
八三三三	同上月面鳳山郡雙山面		
八三七五 八六四六	同平山郡上月面鳳山郡雙山面		
九二〇六	同麟山面、雙山面		
八六一七	同平山郡麟山面載寧郡上□面	同	同
一〇三二八	同長淵郡樂道面松禾郡桃源面		
一〇三三七 一二八六三 七六〇八 七二三六 七五〇五	同長淵郡樂道面 平北宣川郡新府面 同宣川邑	同	同

鑛業代理人 堀田兼友 京城府□□町 三成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 昭和十一年五月四日屆出

龜城郡龍西面興津平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 昭和十一年五月日屆出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八三六四	江原楊城郡靑院面京畿楊平郡楊東面 靑雲面	韓重熙	京城府昌信町呂雲澤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二日屆出
一一五四六	江原金化郡金城面遠東面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	金化郡岐梧面藤本寅三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五日屆出
二〇四〇九	忠北陰城郡遠南面陰城面	金顔洙	陰城郡陰城面相澤市五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六日屆出
一八五九二 一〇一二〇	慶南咸安郡山仁面 同山仁面、漆原面	朝鮮製錬株式會社	馬山府通町手島哲夫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五月六日屆出

黃昏 (106)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사랑을넘어서(二)

(대답하라 더욱 대답하라 그리고 언제든지 대답하라)

경재는 일직 책중에서 읽은 인상기픈 이러구절을생각하엿다 그책은 려순에게 읽힌일이 잇다。그러니만치 그감명은 지금 더욱 기퍼젓다。그것은 어떤사람에게든지 필요한말일뿐아니라 자기들의 지금의 경우에도 적절히 요구되는 말이엇다。

그러나 그대로 말하는것은남을 만흡히 교훈하는것이것가태서。

『사람은 언제든지 대답해야한다구 말하지 안엇습니까?』

하고 조곰 돌웅길을 취해서 말하엿다。

그리자 여태까닥업시 안젓든 려순의 빰에는 야튼 물결이——그러나 어룽거리 찰물결이 펀뜻 서리엇다——

『호호호……얼마나 대답합니까?』

하고 려순은 요염하다고 할만치 돌변한 얼굴을 경재에게로 돌린다。그우슴은 일순간에 지나지 안헛스나 서리ㅅ바람가티 쌀늘하다。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그것은 백열한 마음만이 보낼수잇는 참(?)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는때에 려순은 다시,

『지가 얼마나 대답한가 말슴이애요!』

하고 부연하듯이 말한다。

그러나 경재는 그뜻을 얼른 해득해낼수 업섯다

『무엇이 말입니까?』

『지가 일직 한번이라도 선생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안흔 적이 잇습니까?』

하고 려순은 아까와는 전연 다른——일직 한번도 본일이 업는, 심히 침착하고 다부진태도로 다시 말을 잇는다——

『그리고 아모리 짜른 순간일지라도 지금가티 선생님을 고독한 가운데에 홀로 남겨노흘이 잇습니까?』

『웨……려순씨가 잇는데……』

『아니에요, 둘이 잇는데, 혼자일때보다 더 외로운 경우가 잇지 안홀가요?』

『글세요, 잇슬런지도 모르지요。』

『잇슬런지도?…… 그러면 선생님은 아직 경험한 일이 업스시군요……』

하고 려순은 경재의 대답도 기다릴 여유업시,

『그럿치요, 업슬겁니다。선생님은 행복하십니다!』

하고 샹긋 웃는다。

『웨요?』

경재는 얼핏 이러케 뭇다가 저로도 그물음이 너무 우활(迂濶)한것것고、또 맘이 공연히 조급해나서、

『그러면 려순씨는 불행하단말슴입니까?』

하고 돌여 물엇다

『아니、반드시 그런것도 아니겟지요』

『………』

『선생님은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무얼요?』

『저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치안으면……』

『그거야 생각하는 자신에 달린거니까요……그리고 또자기이외의 사람의 행불행은 노상알수 업는거니까요。즉남이 보기에는 행복한것가튼일도 그사람자신에게는 불행으로 느껴지는 수도 잇는거니까요……』

『저는 이러케 생각합니다。모든 게루(係累)를 말끔 버서버리면 무엇보다 제일 행복하리라고……첫재 맘이 갓분해서 아주 재생이나 한것가틀겝니다。불교에서 일르는 해탈(解脫)이란것도 아마 그런것이 아닐가 합니다』

어것은 확실히 지금의 려순의심경을 암시하는말이엇다。

사람은 무엇에 집착하면 할수록 되려 그것에 얽매여버리는것을 려순은 육신(肉身)으로 절실히 느끼엇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것을 이저버리고 떠러버리엇스면 하고 바랏다。괴롭기 때문이엇다。괴로워서 견될수 업섯기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것을……경재라는 존재를 이저버렷스면……)

그는 속으로 다시금 이러케 생각하엿다。

한때는 이런생각을 좋이 할수업섯고 또한때는 이런생각을 무서운것으로 몸서리처질도 잇섯다。

그러나 그고비를 넘어서 어느정도까지 이런생각을 자유로 하게되는 오늘에도 만흔 결코편하지가 안헛다。

이조라고 하는것은 요컨대잇지못하기때문이 아닐가?…그는 여게서 또 오뇌를 깨닷는다。그것은 전보다도 어떤의미에서 더킵고 더무거운 번뇌이기때문이엿다。

사람은 결국 저고남 석자가를 버릴수 업는것인가?…!

그는 이러케 또 속으로 생각하며 이울하게 침울해안졋섯다。